

광복군 제2지대가

이 해 평 (1917~1997)

총 어깨 메고
피 가슴에 뿜다
우리는 큰 뜻 품은
한국의 혁명 청년들
민족의 자유를 쟁취하려고
원수 왜놈 때려 부시려
희생적 결심을 굳게 먹은
한국 광복군 제 2지대
앞으로 끝까지 전진
앞으로 끝까지 전진
조국 독립을 위하여
우리민족의 해방을 위해

■ 해 설 :

문학이 한 시대의 소산이라면 독립군가인 「광복군 제2지대가」는 암흑기 일제치하 저항문학 치열한 시정신의 한 모범이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는 독립군들의 조국애가 투쟁적이고 격렬한 시어인 “민족의 자유를 쟁취하려고 원수 왜놈 때려 부시려”, “한국 광복군 제 2지대 앞으로 끝까지 전진” 할 뿐이라는 다짐이 참으로 결연하다.

이 노랫말을 지은 이해평은 본명이 이재현으로 경기도 시흥 사람으로, 1919년 3.1운동 직후 가족과 함께 중국으로 망명했다. 광복군 제2지대는 이범석 장군이 지대장으로 있었고, 본부를 중국 섬서성 서안에 두고 중국 영국 미국 연합군과 가슴 벅찬 합동 작전을 도모하며, 조국 광복을 꿈꾸었다.

이렇게 시와 노래가 조국애와 일심동체가 된 「광복군 제2지대가」는 “조국 독립을 위하여 우리 민족의 해방을 위해” 큰 뜻을 품은 “혁명 청년들”을 길러냈을 것이다.

■ 선 자 : 홍 일 선

1950년 경기도 화성 출생. 1980년 『창작과 비평』 불호로 등단. 주요 시집으로 「농토의 역사」 「한 알의 종자가 조국을 바꾸리라」 「흙의 경전」 등. 현재 한국문학평화포럼 회장, 한국작가회의 자문위원 그리고 여주 남한강 숲 속에서 닭 700여수와 더불어 「바보숲느림보강등불학교」를 모시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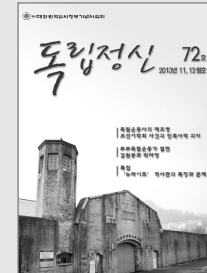
홍 일 선

독립정신

2013 1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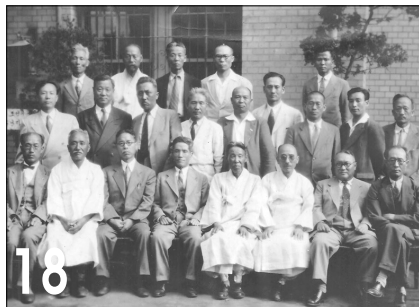
통권 72호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의 회보 「독립정신」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첫 기관지인 「독립」의 자주 독립정신과 민족적 정통성을 이어받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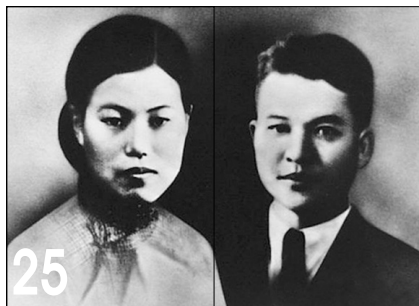


발행인 | 김자동
편집인 | 김학민
편집위원 | 이두엽, 이학노, 김지웅, 곽태원, 이일선, 안효진
표지사진 |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편집 · 디자인 | 대관인쇄

우 100-101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76-3 오양수산 B/D 305호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TEL : (02)3210-0411 | FAX : (02)732-2870 | E-mail : kpg1919@korea.com
홈페이지 : www.kopogo.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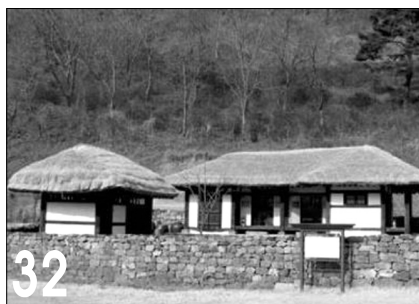


- 04** 권두언_
삶의 좌표가 된 백범어록
| 김 정 남



- 07** 특별기획_
‘뉴라이트’ 역사관의 특징과 문제
| 고 태 우

- 15** 독립운동사의 재조명_여섯번째
조선어학회 사건의 민족사적 의미
| 박 용 규



- 22** 부부 독립운동가 열전_여섯번째
김원봉과 박차정
| 김 삼 웅

- 30** 100년 편지_
조국의 독립을 위해 역사를 연구하신
단재 신채호 선생님께
| 서 정 현

- 33** 영화읽기_
영화 <일대중사>,
영화적 경험으로서의 역사
| 이 두 희

- 38** 시로 읽는 여성독립운동가 열전_여섯번째
여성의식 향상과 민중계몽에
앞장 선 박원희
| 이 윤 옥

- 40** 임정서가_
한글 만세, 주시경과 그의 제자들
조 성 환
이 윤 재
빨치산 대장 홍범도 평전
| 편집부

- 51** 독립정신 이모저모



삶의 좌표가 된 백범어록



김 정 남
前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踏雪野中去 눈 밟 속을 가더라도
不須胡亂行 함부로 걷지 마오
今日我行跡 오늘 내 발자국이
遂作後人程 뒷사람의 길이 될지니

1970년대 초, 우리는 백범이 쓴 위의 휘호를 복사해 나누어 가진 적이 있었다. 대한민국 30년에, 펄림체(총탄을 맞은 탓에 손을 떨면서 쓴 글씨)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백범의 글씨 이기에 그랬던 탓도 있지만, 그 글귀가 아주 맘에 들었다.

백범 역시 그 글귀를 좌우명으로 삼았다는 설(說이) 있었다. 자신만은 누가 뭐래도 바른 길을, 분명한 걸음걸이로 가겠다는 조용하지만 결연한 다짐이 이 글 속에는 담겨있다.

그때는 서산대사의 시(詩)인줄로 알았지만, 뒤에 조선조 정조·순조 연간의 문인 임연당(臨淵堂) 이양연(李亮淵 1771~1853)의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금도 이 글귀를 자신의 좌우명 또는, 삶의 좌표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어떤 사람은 ‘스승’이 가야 할 길로 이 글귀를 인용하기도 한다. 스승이 올바른 길을 걸어야 그 제자와 후학들이 스승의 발자국을 따라오

게 된다는 것이다. 어찌 스승뿐이라. 지도자의 가는 길이 모름지기 그래야 한다. 어쨌든 이 글은 백범으로 하여 세상 사람들의 입에 회자하게 되었으니 「백범어록」속의 말씀이나 다를 바 없다 하겠다.

백범에게 길을 물어

이승만과 백범을 비교하면서, 백범을 가리켜 비현실적이었다고 말하는 것을 흔히 듣는다. 당대에도 그런 말을 들었음인지 백범의 어록 가운데 이런 말이 있다.

“우리는 현실적이나 비현실적이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정도(正道)이냐, 사도(邪道)이냐가 생명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비록 구절양장이라도 그 길이 정도라면 그 길을 택해야 하는 것이고, 진실로 이것만이 사람이 갈 길이니, 여기에서 현실적이나 비현실적이나 하는 것은 문제 외의 문제이다”

그렇다. 대부분의 경우 현실적이라는 것은 구차한 변명이거나 자기 합리화에 지나지 않는다. 그 길이 가야 할 길이 아니라면 아무리 현실의 유혹이 강하더라도 가지 말아야 할 것이요, 그 길이 마땅히 갈 길이라면 그것이 백척간두라고 해도 기꺼이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일이다. 백범의 이 말씀은 우리가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명료한 지침이 되고 있다.

오늘날 세계화, 국제화 시대에 대해서도 일찍이 백범은 예견했던 것 같다. 백범을 맹목의 국수주의자로 보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다. 백범은 가장 민족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것을 그때 이미 통찰하고 있었다. 문명교류학의 대가 정수일은 백범의 탁견에 공감과 찬사를 금치 못하고 있다.

“세계인류가 네요 내요 없이 한 집이 되어 사는 것은 좋은 일이고, 인류의 최고요 최후의 희망이요 이상이다. 그러나 이것은 멀고 먼 장래에 바랄 것이요 현실의 일은 아니다. 사해동포의 크고 아름다운 목표를 향하여 인류가 향상하고 노력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마땅한 일이나 이것도 현실을 떠나서는 안되는 일이니, 현실의 진리는 민족마다 최선의 국가를 이루어 최선의 문화를 낳아 길러서 다른 민족과 서로 나누고 돕는 일이다 이것이 내가 믿고 있는 민족주의요 이것이 인류의 현단계에서는 확실한 진리다.(「나의 소원」중에서)

최근 이 나라 문화계는 절도범들이 일본 대마도에 원정가서 훔쳐온 불상을 돌려주어야 하느냐 아니냐로 온통 시끄럽다. 지금은 ‘장물’이 분명한 이 불상을 놓고 벌이는 논쟁도 백범어록을 통해서 그 명쾌한 대답을 얻을 수 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일단 장물을 돌려주고 나서, 만약 일본 측이 이 불상을 불법적으로 강탈해 간 것이 확인된다면 그때 떳떳하게 돌려받아도 늦지 않다. 남에게 빼앗기는 아픔을 겪었으니, 우리만은 남의 것을 빼앗는 나쁜 짓은 하지 않아야 한다. 이처럼 우리는 지금도 백범에게 길을 묻고 있다. 백범어록은 아직도 여전히 우리 삶의 좌표가 되고 있다. 

‘뉴라이트’ 역사관의 특징과 문제



고 태 우
대림대 강사

‘뉴라이트’의 태동과 ‘대안교과서’의 등장

지금 ‘뉴라이트 교과서’로 불리는 교학사 『고등학교 한국사』의 내용과 그와 관련된 김정여부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교학사 교과서로 지칭되는 ‘뉴라이트 교과서’에 대한 문제를 돌아보기 전에 ‘뉴라이트’ 세력의 역사관을 다시 한 번 찬찬히 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 글은 한국사회에서 ‘뉴라이트’로 불리는 세력의 형성 과정을 생각하면서 ‘뉴라이트’로 자처하거나 지칭되는 이들의 역사관을 간략히 짚어보고, 그 역사관을 극복하고자 지향해야 할 역사 서술에 대해서 생각해보고자 씌어졌다.

과거 언론보도를 찾아 거슬러 올라가보면,¹⁾ ‘뉴라이트(New Right)’ 용어는 2000년대 초반 해도 영미의 대처나 레이건 정부의 슬로건이었던 ‘작은 정부, 큰 시장’의 이념이 되었던

1) 언론 보도 내용은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 가온(<http://www.kinds.or.kr/>)에서의 검색 결과에 따른 것이다.



‘신자유주의’ 의미로 쓰였다. 그러다가 이 용어의 의미는 2004년 11월 『동아일보』에서 ‘뉴라이트, 침묵에서 행동으로’라는 제목으로 기획 연재 기사를 낸 후 바뀌게 된다. 이 기사 이후에 ‘뉴라이트’란 명칭은 말 그대로 한국사회에서 ‘새로운 우파’의 등장과 그들 세력을 의미하는 단어로 널리 자리를 잡았고, 현재도 그렇게 쓰이고 있다.

뉴라이트 세력은 한국의 보수진영이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잇따른 출범과 2004년 총선에서의 완패를 극복하고 ‘꼴통보수’ 이미지를 벗고, 우파의 새 비전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위기의식 속에서 등장하였다. 그런 공감대 속에서 2004년 11월 자유주의연대가 출범하였고, 이후 교과서포럼, 뉴라이트싱크넷 등이 잇따라 설립되면서 2005년 11월 뉴라이트전국연합, 2006년 6월 뉴라이트재단이 만들어졌다. 내부에 노선 차이가 있지만 자유주의와 시장경제, ‘진보좌파 척결’을 중시하면서 한국사회에서 ‘합리적 보수’의 이미지를 추구하고, 정권 교체를 강조한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이후 ‘뉴라이트’ 세력은 그들 스스로의 정치세력화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한나라당과 공조를 취하면서 이명박 정부가 탄생하는 데 기여하였다.

뉴라이트는 기존의 역사 교과서에 대하여 ‘좌편향’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여러 차례 역사 논쟁을 벌였다. 사회과학자들이 주축이 된 뉴라이트 계열의 교과서포럼은 2008년 초 『대안교과서 한국 근·현대사』(이하 ‘대안교과서’)를 내놓으며 기존 역사 교과서 서술에 문제를 제기했고,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보수세력은 근현대사 교과서를 공격하였다. 이명박 정권은 교육과정을 여러 차례 뒤바꾸면서 역사 교과서에서 사용한 민주주의 개념을 ‘자유민주주의’로 대체하도록 했다.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2011년 현재 교과서 논란의 주역인 ‘한국현대사학회’도 창립되었다. 기존 학계와 시민사회에서는 뉴라이트 계열과 이명박 정부 등의 행위에 대하여 거센 반대와 항의를 했고, 그러한 대립 구도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아래에서는 뉴라이트의 역사관을 교과서포럼 구성원에 집중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교과서포럼은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되어 뉴라이트 형성 초기부터 활동을 시작했고, 다른 뉴라이트 단체가 단순히 역사문제에 언론상의 논평에 그친 것에 비하여 뚜렷한 목적의식 아래 꾸준히 역사 문제에 개입하였다.²⁾ 따라서 교과서포럼 구성원들의 역사 인식을 뉴라이트 역사관으로

서 이해하는 것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그들이 공동으로 편찬한 ‘대안교과서’³⁾와 그 이후 저작들을 통해 뉴라이트의 역사관을 살펴보았다.

‘뉴라이트’의 역사관

1)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굳은 신념

‘대안교과서’ 등에서도 보듯이 뉴라이트 학자들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에 강한 신념을 지니고 있다. 그들은 대한민국이 탄생하는 과정에 특별한 애정을 쏟았다고 하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가 “국가가 인간의 삶을 자유롭고 풍요롭게 만들기에 적합한, 지금까지 알려진 한 가장 적합한” 체제로서 이해하고 있다(6쪽). 교과서포럼뿐만 아니라 다른 뉴라이트 단체에서의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신봉 역시 곳곳에서 드러난다. 자유주의연대의 대표를 지냈던 신지호는 “구우파가 국가주의적 우파였다면 우리는 자유주의적 우파”라고 표방했다(『동아일보』 2004.11.23). ‘뉴라이트’ 운동의 싱크탱크를 자처하며 2005년 3월 창립했던 ‘뉴라이트 싱크넷’은 창립선언문에서 “대한민국이 반(反)시장주의, 민주주의, 반자유주의, 반법치주의 등으로 인해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고 밝혔다(『동아일보』 2005.3.23). 여기서 표방된 자유주의는 이명박 정부 초기 역사 교과서에서의 ‘자유민주주의’ 논란을 겪으면서 ‘자유민주주의’로 더욱 확실하게 탈바꿈했다. 이처럼 뉴라이트가 주도하는 담론에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중시하고, 그 체제가 인류사회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다.

뉴라이트는 남한이 ‘가장 적합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수호해온 역사를 간직했기 때문에, 그에 대비하여 북한의 역사는 배제시키고 있다. “남한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입각하여 자유롭고 평등하고 풍요로운 사회를 건설해 왔다. 그에 비해 북한 동포는 국제사회로부터 닫힌 가운데 억압, 차별, 빈곤, 기아, 질병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라는 평가이다(17쪽). 사회주의 체제를 선택한 북한은 대한민국의 ‘보론’으로서만 다뤄지고 있는 것이다.

2) 교과서포럼의 구성원과 한국현대사학회 구성원에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 그런 차이에서 ‘대안교과서’와 현재의 교과사 교과서는 서술상 변화가 있다. 그 차이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지만 지면 관계상 생략하도록 한다.

3) 이하 ‘대안교과서’를 본문에서 인용할 때는 괄호로 처리하도록 한다.



문제는 이렇게 북한 배제의 역사학이 현재 남북한 분단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역사 인식으로서 한계가 많다는 점이다. 설령 북한에 분단의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남쪽은 오히려 민족 통합, 미국과 소련의 타협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분단을 저지하는 길이었을 것이다. 남은 ‘선’ 이요, 북은 ‘악’ 이라는 식의 북한 배제 역사는 과거 냉전 시기의 방식, 곧 남북한이 서로 체제 경쟁과 정통성 경쟁을 펼쳐나갔던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는 ‘올드’ 한 것에 머물 수밖에 없다. 상대방을 ‘악’ 으로 상정할 때 대화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뉴라이트 역사관은 ‘통일’ 을 지향하는 관점에서 보면 적절한 역사 인식이 되기 어렵다.

2) ‘식민지 근대화론’ 속에서 잊힌 사실들

뉴라이트 역사관은 시장경제의 역사상을 중시하는 나머지 ‘식민지 근대화론’ 의 역사 인식을 보이고 있다. 뉴라이트는 “한국 근대사는 크게 보면 서양 기원의 근대 문명이 이식되고 정착하는 과정이었고, 식민지 시기는 일본에서부터 사유재산제도가 도입되고 시장경제가 발전하였던 시대였다”(149쪽). 라고 말한다. 근대문물이 도입되고 일제시기에 자본주의가 발달했다는 점은 상식이다. 하지만 그런 점들을 설명하고 평가하는 방식이 문제다.

뉴라이트는 식민지 시기 철도나 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한국에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가 활성화한 것으로 서술하였다. 그런데 시장경제 활성화라든가 인력과 물자 이동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일제시기 학교 보급의 경우는 마치 총독부가 모두 주도한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또 쌀은 일본에 수탈된 것이 아니라 ‘경제 논리’ 에 따라 수출된 것이라고 한다. 또한 “보통의 한국인들도 강제적으로 또는 자발적으로 전시체제에 참여하였다”라고 하면서(132쪽), 그 사실을 전시기 수많은 학생이 다투어 학교에 진학한 점, 졸업생들이 공업화정책으로 늘어난 일자리에 취업한 점 등에서 찾고 있다.

이러한 서술은 오류이기도 하면서 전형적인 ‘식민지 근대화론’ 에 입각한 것으로 보인다. 각종 경제 지표나 성장 지표 속에서 ‘식민지’ 는 보이지 않는다. 학교 보급운동은 민간에서 해왔던 경우가 많았고, 총독부는 오히려 이를 보통학교 중심의 ‘우민화 교육’ 을 시행하면서 통제하였다. 일본 자본주의 발달을 위해 한국사람은 자신이 지은 쌀을 먹지 못한 채 일본으로 이출해야 했던, 식민지가 희생된 부분에 대한 고려는 잘 보이지 않는다. 한국인들에 전시체제에 참여했다는 대목에서는 학생들이 학교에 다투어 진학하려 했다는 것보다는 학교 수업도 제대로 못 받고 근로동원되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는 것이 전시체제의 ‘일반적’ 모습을

설명하는 데 더 알맞을 것이다. 몇 가지 사례에서도 보듯이 여러 사회경제적 현상들을 평면적으로만 나열할 경우, 이는 일제에 의한 조선의 발전상, 문명의 제도화가 부각되어 ‘시혜론’ 적 의미로 파악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식민지 근대화론’ 에 입각한 인식 속에서 민족운동에 대한 부분 등 여러 많은 사실들이 잊히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만 인정하는 시각, 다시 말해 반공적 시각 속에서 ‘공산주의’ 등 다른 가치는 애써 비중을 줄이고 있다. 조선공산당이나 신간회, 노동·농민운동은 ‘민족주의 계급운동’ 이라는 애매한 표현에서 뭉뚱그려 서술하였다. 임정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오류와 편향이 보인다. 131쪽에 ‘미국에서 독립운동가들의 갈등’ 을 제목으로 박용만계, 안창호계, 이승만계의 갈등 문제를 다루었는데, 안창호와 이승만의 갈등이 이승만의 임정 대통령 면직 사태로 이어진 것으로 서술했다. 이승만이 임시 대통령 기간 미주에 머물면서 임정을 돌보지 않고, 미주 동포들로부터 거둔 세금을 유용하여 탄핵의 빌미를 제공했던 사실은 언급되지 않는다. 또한 일제 말기 해외 독립운동 세력이 “여러 분파로 나뉘어 서로 갈등했다”고 하는데, 해방을 앞두고 김원봉 세력과 김구 세력이 결합함으로써 임정이 좌우를 망라하는 정부 형태를 갖추 수 있었던 성과는 눈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 이처럼 뉴라이트 역사관에는 ‘식민지 근대화론’ 적 인식을 바탕으로 하면서 여러 많은 사실들이 사상되고 있는 것이다.

3) ‘나라만들기’ 사관 : ‘건국’ 과 ‘개발’ 을 최우선으로 바라보기

뉴라이트의 해방 이후 역사 인식은 ‘나라만들기’ 사관의 특징을 보인다. ‘대안교과서’ 의 편집책임자이자 핵심인물인 이영훈은 “건국 이후 대한민국의 역사는 나라만들기의 과제를 단계적으로 합리적으로 성취해 가는 관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 과제들은 “한꺼번에 동시다발로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 과제의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⁴⁾ 물론 그도 대한민국이 범한 잘못을 모두 덮어서는 안 된다고 했지만, 결국 뉴라이트의 최우선순위가 ‘건국’ 과 ‘개발’ 인 상황에서 다른 가치들은 부차적일 수밖에 없다.

3) 이하 ‘대안교과서’ 를 본문에서 인용할 때는 괄호로 처리하도록 한다.

4) 이영훈, 『대한민국 역사: 나라만들기 발자취 1945~1987』, 기파랑, 2013, 43~44쪽.



그러한 사례는 이승만과 김구를 매우 대조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부분에서 잘 드러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임정 탄핵에서 이승만의 과오는 언급되지 않았다. 또한 이승만은 ‘대안교과서’에서 여러 면에 걸쳐 대대적으로 기술되었다. 그에 반해 김구는 명성왕후 원수를 갚고자 “일본 상인을 군인으로 오인하여 살해”했고, 한민애국단을 조직해 항일 테러를 하였으며, “1948년 남한만의 단독 총선거를 실시한다는 국제연합의 결의에 반대하고, 북한에 들어가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교섭을 벌였으나 실패”한 인물로 서술되었다. 또한 김구는 “이후에도 대한민국의 건국에 참여하지 않았던 인물”로 기술되었다(129쪽). 김구는 살인범에 테러리스트였고, 건국에 기여한 바 없는 인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이승만과 김구에 대한 대비되는 서술은 ‘건국’이라는 가치가 절대화하는 것의 문제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또 다른 보기를 들어보자. ‘대안교과서’에서 도시 빈민들의 생존권 투쟁은 “철거에 물리적으로 저항하거나 국공유지의 유리한 불하를 주장하는 빈민촌의 집단행동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라고 서술되었다(202쪽). 그에 비해 뉴라이트는 박정희의 ‘10월 유신’을 자주국방과 중화학공업 발전을 위한 것으로 미화하고 있다. 이 대목에서 ‘개발’이 최우선가치가 되는 상황에서 그에 반하거나 뒤따르지 않는 사실들은 평가 절하되거나 무시되는 인식을 엿볼 수 있다.

4) 승자 중심 사관과 엘리트주의

‘건국’과 ‘개발’, 즉 나라만들기를 우선하는 역사관은 곧 국가주의적인 역사관이 될 소지가 크다. ‘나라만들기’라는 과제명에서부터 그 과제의 실천 주체는 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나라만들기’ 과정에서 누가 어디까지 양보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목표가 어느 수준까지 달성되어야 ‘건국’과 ‘개발’이라는 가치가 아닌 다른 가치에도 눈을 돌릴 수 있을지, 그 점이 불분명하다. 따라서 ‘건국’을 위해서, 또는 ‘개발’이라는 이유로 좀 다른 목소리들이 묻힐 수 있다. 그 점에서 뉴라이트의 역사관은 승자 중심 사관이라는 문제점을 갖는다.

한편으로 뉴라이트는 엘리트 중심으로 역사를 파악하고 있다. ‘대안교과서’에서 “대한민국의 건국은 역사적으로 발전해 온 개화파에 의해 주도되었다”라고 한다(149쪽). 또 일제시기를 서술하면서 근대문물에 수혜 받은 계층을 계속 강조한다. 여러 계층이 광범하게 근대문물을 접했지만, 그 ‘수혜’의 핵심층은 ‘친일협력’ 세력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는 ‘동학농민봉기’로 격하시키면서 그것을 유교적 근왕주의에 입각한 복고적 개혁의 성격을 띤 것으로 보았다(45쪽). 그러나 농민군은 유교적 지배질서에 안존하지 않았고, 저항운동을 펼쳤다. 현재의 연구성과에서는 대체로 농민군 지도부가 현실의 문제를 지적하고 개혁을 외쳤으나,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전망을 제시한 것은 아니었다고 보고, ‘혁명’이라기보다는 ‘전쟁’으로서 평가한다. 따라서 단순히 ‘복고’적 의미를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또한 농민군들이 ‘집강소’를 세웠다는 점도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그런 점들을 놓고 보면 뉴라이트의 역사관에서는 농민전쟁의 의미가 축소 해석되고 있다고 하겠다.

농민전쟁의 사례에서도 봤지만 뉴라이트 역사관에서는 역사 변동 과정에서 민중층에 대한 인식, 그에 대한 배려가 잘 보이지 않는다. 해방 이후 역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노동자층, 농민층의 역할에 대한 뉴라이트의 서술은 보이지 않는다. 엘리트주의 역사관, 권력자의 관점에서의 역사관이라고 할 수 있다.

미래지향적 역사를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을까?

뉴라이트는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강조하고 있는데, 자유주의가 발달한다고 하면 개인이 단순히 원자화하여 국가의 부속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각 집단에 따라 다양한 견해와 사상이 존재하고, 당연히 역사를 보는 관점도 다양해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만이 옳은 길이라고 하는 사고방식으로는 민주적인 방식이 아니며, 이때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다양성은 인정되기 어렵다. 설령 과거에 ‘건국’과 ‘개발’의 가치가 최우선이 될 수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21세기 지금의 사회는 사회분화의 양상과 더불어 다양한 가치가 필요한 사회이다. 물론 뉴라이트뿐만 아니라 기존 역사학계의 인식이나 역사 서술에도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역사를 서술해갈 수 있을까?

나름대로 생각해보자면 앞으로의 역사 교육은 인권과 평화, 환경, 배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담아낼 수 있는 장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또 단순히 양적 성장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는 지금 행복한가’와 같은 질적인 기준이 앞으로는 더 필요한 지향점으로 보인다.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면서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진정으로 현 정부가 표방하는 ‘국민대통합’의 길이기도 할 것이다. ‘창조 경제’는 창의력에서 나온다. 창의력은 다양한 가치와 생각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배태될 수 있다.

최근 어느 책을 읽다가 잠시 읽기를 멈춘 대목을 소개한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타자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타자를 잃는다는 것은 응답받을 가능성을 잃는 것이다.”⁵⁾

하나의 가치관, 정체성만이 지고의 진리라는 것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타자’에 대한 목소리를 이해하고 함께 담아낼 수 있는 역사 서술, 이것이 더 나은 미래를 전망해가고 기획해 갈 수 있는 역사학이 아닐까 감히 생각해본다. 

5) 사이토 준이치 지음, 윤대석·류수연·윤미란 옮김, 『민주적 공공성』, 이음, 2009, 115쪽.

조선어학회 사건의 민족사적 의미



박용규
한글학회 연구위원

1. 머리말

2013년은 일제가 일으킨 조선어학회 사건이 일어난 지 71주년이 되는 해이다. 조선어학회 사건은 1942년 10월 1일에 발생하였다. 일제는 조선어학회의 인사들이 언어독립투쟁을 전개하고 있다고 간파하여, 조선어학회의 사무실을 철저히 여섯 내지 일곱 차례나 수색하였고, 급기야 조선어학회의 회원 33명을 검거하여 탄압하였던 것이다. 일제는 조선어학회의 인사들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처벌하였다. 일제시기에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모두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옥고를 치렀다. 일제에 검거된 조선어학회의 인사 가운데 이극로는 징역 6년형을 언도받기에 이르렀다. 이윤재와 한징은 함흥형무소에서 순국하였다.

조선어학회 사건에 대한 기존의 주장은 일제가 독립운동에 무관한 조선어학회에 대해 독립운동을 전개한 것으로 조작하여 탄압한 사건으로 보아왔다. 종래의 주장대로라면 조선어학회가 독립운동과 무관한 데도 일제의 억지 조작 때문에 무고하게 조선어학회와 그 인사들이 탄압을 받은 꼴이 되는 셈이다.

필자는 최근 글과 저서를 통해 조선어학회 사건은 조선어학회의 관련 인사들이 일제의 조작과 날조 때문에 탄압을 받은 사건이 아니라, 언어독립운동을 전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제로부터 탄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글에서는 조선어학회가 일제로부터 왜 탄압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규명하고자 한다. 아울러 조선어학회 사건이 남긴 역사적 의미에 대해 살펴보하고자 한다.

2. 조선어학회 사건의 배경

일제는 조선 강점 초기부터 일본어를 조선인에게 보급하여 일본인으로 만들고자 하였다. 1938년에는 조선어 교과목을 학교에서 폐지하였다. 일본어상용정책을 통해 조선민족을 말살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일어상용의 노선을 충실히 따르지 않는 반일 성향을 지닌 민족주의 학술단체가 조선어학회였다.

국외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던 이극로가 귀국한 이후, 그가 조선어학회와 조선어사전편찬회를 진두지휘하였다. 이극로는 독일과 영국이 각각 폴란드와 아일랜드를 식민지로 만들어 지배했을 때 폴란드말과 켈트어를 말살했듯이, 이들 나라를 모델로 하여 식민정책을 펴고 있던 일본제국주의자들도 조선을 지배하면서 민족말살차원에서 조선어를 말살할 것을 예견하고 언어 독립운동을 전개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1929년 1월에 귀국하였다. 그는 식민지 조선의 한복판인 서울에서 14년간 한글 운동 즉 언어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조선어학회는 조선 민중의 지지를 받아가며 민족어 3대 규범집(『한글 맞춤법 통일안(조선어 철자법 통일안)』(1933),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1936), 『외래어표기법 통일안』(1941)을 완성하였다. 3대 규범집은 다가올 민족국가 즉 독립국가에서 곧바로 국어 규범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항일 투쟁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더구나 조선어학회는 민족어 규범으로 된 『조선어대사전』을 기어코 출판하고자 하였다. 사전 편찬은 민족어를 영구히 유지하는 효과를 가져 오고, 더 나아가 이를 통해 민족정신을 양양하기 때문에 항일 투쟁의 성격을 지니게 된다.

이렇게 조선어학회의 인사들은 우리말글이 침략자들에 의해 말살되는 것을 보고 목숨을 걸고 항쟁하였다. 이러한 조선어학회의 사업은 일제의 조선 통치에 반하는 행위였다.

1942년 조선어학회의 회원들을 검거하기 이전인 10여 년 동안, 일제는 조선어학회를 ‘민

족주의자들의 소굴’로 파악하고 있었다. 1938년에 이미 일제는 조선어학회를 ‘요주의단체’로 규정하고 있었다. 남은 일은 조선어학회를 탄압할 수 있는 꼬투리만 잡으면 되었다.

3. 조선어학회 사건의 전개과정

조선어학회에 대해 일제는 감시와 탄압을 이어가다가 조선어학회의 회원인 정태진이 연루된 작은 사건이 일어나자, 이를 빌미로 조선어학회를 전면적으로 탄압하였다.

일제는 1942년 9월 5일 정태진을 홍원경찰서에 출두하도록 한 같은 날에, 조선어학회의 사무실을 급습하여 이극로의 책상 앞에 있던 “널리 퍼는 말”이라는 편지글을 검열함으로써¹⁾, 조선어학회와 대중교 단체를 탄압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였다.

일제는 1942년 10월 1일에서 1943년 4월 1일까지 조선어학회의 핵심 회원과 사전편찬을 후원한 찬조회원을 대거 검거하였다. 일제 비판을 솔로 달래다가 반신불수가 된 권덕규와 결핵으로 입원 중인 안호상만이 구속을 면하였다. 조선어학회 관련자 가운데 총 31명이 일제에 검거되어 구금되었다.

함흥경찰서에 끌려간 이극로는 미국에서 “귀국해서 한글 운동을 통해서 조선의 독립에 이바지하려 했다.”²⁾라는 진술을 하였다. 계속해서 이극로는 “독립사상을 가지고 민족문화 재건을 위하여 하였다.”³⁾라고 말하였다.(일제 보안과장 야기의 증언) 이와 같은 이극로의 진술은 독립운동차원에서 한글운동을 전개하였다는 그의 입장 표명이었다.

1942년 이극로가 진술한 이 발언은 그가 1928년 미국에서 행한 연설과 같다. 이극로는 1928년 6월 24일 미국 뉴욕에서 동포들에게 행한 강연에서 “국어방면에서 일을 하리라”⁴⁾라고 포부를 밝혔다. 같은 해 10월 1일 하와이 강연에서 자신은 귀국하여 “독립운동에 전심 갈력하겠다”⁵⁾고 밝혔다. 그가 밝힌 국어 독립운동은 바로 한글 운동을 지칭한 것이었다. 1928년

1) 박영석, 『일제하독립운동사연구』, 일조각, 1984, 317쪽. ; 이인, 『반세기의 증언』, 명지대출판부, 1974, 125쪽.

2) 김도연, 『나의 인생고백서』, 상산회고록출판동지회, 1965, 139쪽.

3) 김선기, 「국어 운동, 한글 학회의 발자취」, 『나라사랑』26, 1977, 3, 41쪽.

4) 「리극로박사의 국어 강연」, 『신한민보』, 1928, 7, 5.

5) 「리극로박사 하와이에서 귀국」, 『신한민보』, 1928, 10, 11.



▲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탄압을 받은 인사들이 조직한 심의회 회원들의 모습
(앞줄 왼쪽부터 김윤경, 정세권, 안재홍, 최현배, 이종화, 장지영, 김양수, 신윤국, 가운데 줄 왼쪽부터 김선기, 백낙준, 장현식, 이병기, 정열모, 방종현, 김법린, 권승욱, 이강래, 뒷줄 왼쪽부터 민영욱, 임혁규, 정인승, 정태진, 이석린, 총 22명 촬영. 1949년 6월 12일에 첫 모임을 갖고 찍은 사진으로 판단됨. 사진은 권한술 님이 제공.)

8월 2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 앞에서, 그는 이미 연설을 통해 모어를 발전시켜 민족과 민족성을 보전할 방법으로 국어사전을 편찬하고 우리말을 국문으로만 쓰며 우리글을 가로로 쓰자고 주장하였다.⁶⁾ 귀국하여 그는 1942년 조선어학회 사건이 터질 때까지 자신의 계획대로 언어 독립운동인 한글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극로의 진술을 바탕으로 일제는 조선어학회와 그 한글 운동을 독립운동을 획책한 단체요 활동으로 결론을 내렸다.

나머지 회원들(최현배, 이희승, 정인승 등)은 조선어학회를 통해 우리말글을 정리, 통일하여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민족어를 보존하려는 운동 정도로만 한글운동을 인식하였다. 일제는 자신들의 문초에 강력히 부인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로 석방시켜 주었다. 그러나 조선어학회의 핵심인사들에 대해서는 무거운 형벌을 부과하였다.

6) 「국어가 민족의 생명, 가장 시급한 문제」(이극로 박사의 국문 강연문), 『신한민보』, 1928, 8, 30.

1944년 9월 30일 나카노 도라노 예심판사는 이극로가 조선의 독립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조선어학회라는 결사를 조직하고, 이와 관련된 모든 사업에 참여하였다고 결론(개정치안유지법 제1조의 결사 조직죄, 제5조의 결사 목적 실행 혐의죄를 적용함)을 내려, 최현배 등 11명과 함께 공판에 회부하였다.

1945년 1월 16일 함흥지방법원의 재판부(니시다 판사)는 1심 판결 선고에서 이극로에게 징역 6년형을, 최현배에게 징역 4년형을, 이희승에게 징역 2년 6개월형을, 정인승에게 징역 2년형을 언도하였다. 1945년 1월 18일 이극로, 최현배, 이희승, 정인승은 고등법원에 상고하였다.

일제는 1945년 8월 13일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일제는 조선어학회의 한글운동을 1930년대 민족주의자들이 전개한 간접적이고 소극적인 독립운동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패망의 결과 8월 17일에야 석방되었다. 약 3년간 옥고를 치렀다.

4. 조선어학회 사건의 역사적 의미

조선어학회 사건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사건 당사자들의 회고하는 글에 의거하였다. 최현배는 이 사건을 일제가 죄명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맞도록 죄상을 꾸며대는 것이었다. 사실(事實)에 없는 것을 토하게 하려고 고문을 하였다고 기술하였다.⁷⁾ 이희승은 이 사건은 일제의 고문에 의한 자백으로 이루어졌고, 허구(虛構)의 범법사건이었다. 터무니없는 죄를 뒤집어씌워 치안유지법 제1조로 얹어매는 것이었다라고 기술하였다.⁸⁾ 정인승은 이 사건을 정태진의 자백서와 일치되도록 억지 조작하여 탄압한 사건으로 기술하였다.⁹⁾

회고록에 바탕을 둔 연구는 이 사건을 일제의 조작과 날조 때문에 조선어학회 인사들이 탄압받은 사건으로만 인식하게 하였다. 동시에 일제의 잔학상과 조선어학회 회원의 수난상만 부각시켰다. 그러다보니 이 사건의 본질을 규명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7) 최현배, 「한글과 나와 감옥」, 『녹십자』, 1947, 5, 17쪽.

8) 이희승, 「조선어학회사건」(2), 『어문연구』9(3-3), 1975, 432쪽, 433쪽, 437쪽.

9) 정인승, 「민족사로 본 조선어학회 사건」, 『나라사랑』42(12-1), 외솔회, 1982, 20쪽.

가장 큰 문제점은 이 사건을 일으킨 일제의 의도나 조선어학회를 주도해간 이극로에 대해 분석하지 않았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일제의 최종 판결문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조선어학회 사건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는 일제의 판결문과 학회의 대표자인 이극로가 남긴 글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일제의 재판부는 1945년 8월 13일에 이극로 등이 조선독립을 열망하고 극히 농후한 민족의식을 가지고 있는 민족주의자이고, 조선어학회의 어문운동이 10여 년간 극히 심대한 악영향을 끼쳤기에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

조선어학회 사건에서 가장 많이 고문을 당한 이극로는 일제가 이 사건을 ‘조작’하였다고 기술하지 않고, 조선말글을 말살하려는 일제의 식민지 동화정책 때문에 이 사건을 일으켜 탄압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평가하였다. 그는 자신들이 전개한 한글운동이 ‘조선 독립운동의 근본’ 이어서 조선어학회사건이 발생하였다고 기술하였다.¹⁰⁾

이운재도 청년들에게 항상 “민족의 말과 글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나라를 사랑하는 길 이 되고 또 민족 운동이 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¹¹⁾ 그에게 한글운동은 독립운동이었던 것이다.

해방 뒤 김병제도 이 사건으로 일제로부터 조선어학회가 탄압을 받게 된 것은 일제의 조선 말 말살 정책에 대하여 영웅적으로 민족적 반항운동을 해온 증좌라고 평가하였다.¹²⁾

이처럼 일제의 조선어학회의 어문운동 인식과 이극로의 한글운동 인식이 상당히 일치하고 있었다. 일제는 조선어학회의 한글운동에 대해 민족의식을 고취하여 민족의 독립을 달성하려고 하는 민족독립운동의 한 형태로 판단하고 있었고, 조선어학회도 민족주의자들의 집단체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극로는 조선어학회의 한글운동을 통해 우리 말글을 연구·정리·보존하고, 이를 통해 민족의식을 고취하여 우리 민족과 민족성을 영구적으로 유지하고자 하였다.

일제의 입장에서는 조선어학회가 일본 제국의 통치에 반대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간파하였기 때문에, 집요하게 조선어학회의 언어투쟁에 대해 분석하였고, 가혹한 탄압과 처벌

10) 이극로, 『머릿말』, 『한글』94호, 1946, 1쪽.

11) 이석린, 「〈한글〉지와 이운재 선생」, 『나라사랑』제13집, 57쪽.

12) 김병제, 『한글날을 맞으며』, 『자유신문』, 1947, 10, 9.

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이들은 조선어학자들에 대한 가혹한 고문과 고문치사도 마다하지 않았던 것이었다.

따라서 일제는 조선어학회의 한글운동을 탄압할 수밖에 없었고, 조선어학회는 일제의 탄압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 사건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일제가 일으킨 조선어학회사건이 남긴 역사적 의미는 첫째 일제가 조선민족말살정책의 구체적 실천을 보여주었다는 점, 둘째 조선어학회가 언어독립운동을 전개하고 있었음을 반증하였다는 점에 있다. 이로 인해 민족운동사에서 조선어학회가 차지하는 위상은 제대로 평가받게 되었다. 

김원봉과 박차정



김 삼 응
前 독립기념관장

치열하게 사랑하고 일제와 싸운 부부

지난해 가을 밀양시에서 강연을 마치고 찾은 감천동 뒷산의 퇴락한 박차정 지사의 묘소를 보고 쉽게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아무려면 대표급 여성독립운동가의 묘소를 저렇게 방치할 수 있는가, 자치단체와 정부에 원망이 쏠렸다.

우리 독립운동사에는 부부 독립운동가가 적지 않지만 약산 김원봉과 박차정처럼 치열하게 사랑하고, 격렬하게 일제와 싸운 독립운동가도 흔치 않았다. 의열단장 김원봉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졌으나 그의 동지이고 연인인 박차정은 덜 알려진 편이다. 김원봉과 박차정은 함께 의열단 등에서 투쟁하다가 결혼하였다. 그리고 부부가 나란히 민족해방투쟁에 헌신하였다.

박차정은 해방 한 해 전인 1944년 5월 27일 34세의 꽃다운 나이에 이역에서 숨졌다. 1939년 2월 중국 강서성 곤륜산지역 항일전에서 중상을 입고 변변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항일투쟁을 계속하다가 순국한 것이다.

김원봉은 해방 후 김구 주석 등 임시정부 요인들과 환국할 때 부인의 유해와 혈의(血衣)를 봉안하여 자신의 고향 뒷산에 안장하였다. 지금 감천동 뒷산에 돌보는 이 없이 방치된 박차정 의사의 묘소는 그렇게 조성되었다.

김원봉과 박차정이 중국 남경에서 결혼한 것은 1931년 3월이다. 김원봉은 34세, 박차정은 21세였다. 젊은 김원봉은 나이에 비해 이미 독립운동 진영에서는 거물급이었고, 박차정은 갓 소녀티를 벗은 나이였지만 국내에서부터 근우회의 중앙집행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옥고를 치르고, 오빠들을 통해 의열단과 연계된 맹렬 독립운동가였다.

두 사람의 결혼은 독립운동가들에게 축복과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다. 김원봉은 미남형의 열혈 투사이고, 박차정은 미녀인데다 북경의 화북대학을 수료한 재원이고 투사였다. 두 사람의 결합은 삭막하기 그지없는 조국해방 투쟁사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일제가 가장 두려워한 의열단 단장

1898년 경남 밀양에서 태어난 김원봉은 13세 때에 한일병탄을 겪고 다니던 학교를 중퇴, 중국으로 건너와 천진 덕화학당과 남경 금릉대학에 입학하였다. 1919년 국내의 3·1운동 소식을 듣고 서간도 신흥무관학교에서 군사훈련을 받았다. 그리고 이 해 11월 길림성에서 동지 13명과 조선의열단을 조직하고 의백(단장)이 되었다.

김원봉은 단원들을 국내외로 파견하여 부산경찰서 폭파사건, 조선총독부 투탄사건, 다나카 저격사건, 밀양경찰서 폭파사건 등 10여 차례에 걸쳐 의열투쟁을 전개하였다. 김원봉은 1923년 1월 북경으로 신채호를 찾아가 의열단선언문의 작성을 의뢰하고, 신채호는 <조선혁명선언>(의열단 선언문)을 작성하여, 모든 의열투쟁에는 이 선언문을 함께 살포함으로써 의열(단) 투쟁의 목적과 이유, 정체성을 천하게 공표하였다. 의열단은 일제강점기 일제 관헌들에게 가장 공포의 대상이었다.

김원봉은 1926년 1월 황포군관학교에 들어가 보다 현대적인 군사훈련을 받고 한국청년혁명회를 조직하는 한편 1927년 8월에는 중국 공산당의 남창 봉기에 참여하는 등 중국혁명 전선에 뛰어 들었다. 1929년 의열단 본부를 상해에서 북경으로 옮겨 보다 치열한 정치투쟁을 전개하고 1930년 4월 레닌주의정치학교를 개교하였다. 조국해방 투쟁을 효과적으로 전개하

기 위해서는 중국 국민의 지지를 받는 중국공산당 세력과의 협력이 불가피하다는 계산에서였다.

그 사이에도 의열단의 항일투쟁은 계속되었다. 1923년 1월 단원 김상옥이 서울에서 일경과 총격전, 1924년 1월 김지섭의 동경 이종교 투탄, 1926년 12월 나석주의 동양척식주식회사 폭탄 투척과, 국내로 진입한 단원들의 청년·노동운동이 진행되었다.

김원봉은 1935년 7월 남경에서 의열단, 한국독립당 등 5당이 통합하여 민족혁명당을 결성할 때 중앙집행위원 겸 서기부장으로 선임되었다. 이 무렵부터 김원봉은 의열투쟁의 노선에서 정치투쟁으로 전환하면서 민족혁명당 산하 조선청년들을 중앙군관학교 성자분교에 입학시키는 등 미구에 전개될 중일전쟁에 대비하였다.

민족혁명당은 1937년 12월 한구에서 해방동맹, 혁명자연맹 등과 조선민족전선연맹을 결성하고 김원봉을 이사장으로 선임하였다. ‘조선연맹’은 조선무장부대(의용대)건설 계획안을 중국 군사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무장투쟁의 준비를 서둘렀다. 10월 10일 마침내 조선의용대가 창립되고 김원봉은 총대장에 취임하여 무한방위전선에 참전하였다.

김원봉은 1940년 연초 조선의용대 3지대를 신설하고, 11월에 조선의용대 확대간부회의에서 의용대의 북상(北上)을 결정, 1941년 4월 황하를 건너 화북에 진입하였다. 여기서 일본군 척후방 공작을 전개했다.

1941년은 김원봉에게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다. 그동안 독립운동 좌파 진영에 속했던 위치에서 우파가 지도해온 대한민국임시정부에 참여기로 하였다. 이 해 12월 민족혁명당 전당대회 대표자 대회를 열고 임시정부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리고 임시정부 의정원의원에 위촉되었다. 이로써 임시정부는 출범 22년만에 좌우합작으로 명실상부한 한민족의 대표기관이 되었다.

1942년 5월 김원봉이 이끈 조선의용대가 광복군 3지대로 편입됨과 더불어 1944년 5월 김원봉은 임시정부 군무부장에 취임함으로써 광복군의 총책임을 맡았다.

해방 후 한국한 김원봉은 친일경찰 노덕술 등으로부터 고문과 미군정경찰에 피검되는 등 수모를 당하다가 1948년 4월 민주주의민족전선 대표자격으로 남북협상차 방북, 귀환하지 않고 북한에 눌러앉았다.

그의 북한 잔류 배경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해석이 따랐다. 친일경찰의 고문과 암살위협, 미군정의 체포령 등의 위협과, 중국에서 함께 활동했던 평양 조선의용군 동지들의 만류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터이다.



▲ 김원봉과 박차정

김원봉은 북한에서 국가검열상 등을 역임하다가 1958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에서 해임되고, 이후 북한 언론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숙청설, 병사설, 사고사설, 자살설 등이 제기되지만 정확한 사인을 밝혀지지 않고 있다. 1급의 독립운동가이면서도 해방 후 북한에서의 행적을 이유로 아직까지 서훈을 받지 못한, 비운의 독립운동가다.

북경에서 만난 여성혁명가 박차정

김원봉은 1931년 봄 남경에서 의열단원 박차정을 아내로 맞았다. 당시 박차정은 22살이었다. 박차정은 1930년 안광천의 주도로 결성된 조선공산당재건동맹 중앙위원에 김원봉과 나란히 7인의 위원으로 명단에 올라있었다. 그러나 이 때에는 아직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서 그때 오빠를 통해 비밀리에 의열단과 연계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다.

박차정은 1930년 2월 동래에서 검거되어 서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유치되었다가 2월 15일 석방되었다. 석방이 되었지만 감시는 계속되고, 일제의 모진 고문으로 몸이 상하여 불기소로 나온 뒤 한 달 동안 꼬박 앓으면서 치료를 받아야 했다. 그러던 중 의열단에서 활동하고 있던 둘째오빠 박문호가 보낸 청년을 따라 중국 망명길에 올랐다. 이 때가 1930년 3, 4월 경이었다.

박차정은 상하이로 거쳐 베이징으로 와서 김원봉을 만나게 되고 이듬 해 두 사람은 결혼을 하기에 이르렀다. 박문호는 경남 동래 출신으로 일본 니혼대학 경제과를 졸업하고, 1925년 동래 청년연맹집행위원으로 경남 청년연맹창립대회에 참가하여 조직부 집행위원이 되면서부터 독립운동에 뛰어들었다. 1926년 사상단체인 혁파회(革派會)의 창립을 주도하고 서무부 위원이 되었다. 1929년 신간회 북대표대회에 부산구 북대표로 참가하여 중앙간부의 일원으로 선임되고, 1932년 중국으로 망명하여 김원봉과 함께 조선혁명간부학교의 운영에 참여하였다. 이해 가을에 비밀리에 귀국하여 조선혁명간부학교 입교생 5명을 물색하여 베이징에 파견하였다. 1934년 일본경찰에 검거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한국 여성독립운동의 선행자이기도 한 박차정은 1910년 5월 7일 경남 동래에서 아버지 박용한(朴容翰)과 어머니 김맹련(金孟蓮)의 3남 2녀 중 넷째로 태어났다. 박차정은 일제의 침략에 항거하여 자결 · 순국한 아버지와 독립운동가 김두전(金斗全), 김두봉(金斗鳳)과 친척인 어머니, 사회주의계열 독립운동가 숙부 박일형(朴日馨) 등의 영향으로 어려서부터 항일의 분위기가 강한 가정환경 속에서 항일민족의식을 키워나갔다. 이런 배경과 함께 신간회, 의열단 등에서 활동한 큰오빠 박문희, 둘째오빠 박문호와 더불어 독립운동에 투신하게 된 것이다.

박차정은 1925년 부산지방 여성교육의 산실이자 당시 항일여성운동을 선도하던 동래일신여학교에 입학하였다. 이곳에서 항일민족의식과 남녀평등사상을 더욱 고취시키며 일신여학교 동맹휴학을 주도하였다. 또한 뛰어난 문학적 기질을 바탕으로 교지 『일신』에 항일의식과 시대인식을 나타내는 문학작품을 쓰기도 하였다.

민족유일당 운동의 일환으로 1927년 여성운동의 전국적인 통일기관인 근우회가 결성되었다. 이에 박차정은 근우회 동래지회 활동을 주도하고 근우회 중앙집행위원과 중앙상무위원으로 선임되어 선전과 출판부문에서 활동하는 등 전국적인 차원에서 여성운동과 민족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또한 1929년 광주학생운동의 연장으로 1930년 1월 서울지역 11개 여학교의 시위투쟁인 이른바 ‘근우회사건’을 배후에서 지도하였다. 이 때문에 일경에 피체되어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기도 하였다.

1930년 봄 의열단원으로 활동하는 둘째오빠 박문호의 연락을 받고 중국으로 망명, 국내에서 항일투쟁 공로를 인정받아 「조선공산당재건설통맹」 중앙위원을 비롯하여 의열단의 총책을 맡아 활동하는, 여성독립운동가로 우뚝섰다. 그리고 1931년 김원봉(金元鳳)과 결혼하면서 본격적으로 의열단의 핵심멤버가 되었다. 남경으로 거주지를 옮겨 청년투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에서 ‘임철애’, ‘임철산’ 등 가명을 사용하며 여자 교관으로 활동하였다.

조선에서 자란 소년들이여
가슴에 피 웅솟음치는
동포여 울어도 소용없는
눈물을 거두고 결의를
굳게하여 모두 일어서라
한을 지우고 성스러운
싸움으로 필승의 의기가
여기서 뿜다.

-박차정,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 교가」 중에서.

한편 김원봉은 1935년 남경에서 좌우 독립운동단체 9개를 통합하여 「조선민족혁명당」을 창당하였다. 이때 박차정은 부녀부 주임으로 활동하는 한편, 1936년 지청천 장군의 부인 이성실과 함께 「민혁명당남경조선부녀회」를 결성하고, 모든 조선의 여성들이 총단결하여 민족독립운동과 여성해방운동에 참여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조선민족전선연맹」이 창립되자 선전 · 홍보분야를 맡아 투쟁하였으며 산하 군사조직인 「조선의용대」의 부녀복무단장으로 활동하면서 의용대원의 사기진작과 선전활동에 매진하였다.

그러나 1939년 2월 장시성(江西省) 쿤룬산(昆崙山) 전투 중에 큰 부상을 입고 후유증으로 1944년 5월 27일 중경(重慶)에서 34세를 일기로 순국하였다. 정부는 1995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젊은 혁명가들의 사랑과 조국해방투쟁

박차정은 조숙한 문학소녀였다. 동래일신여학교 시절에 교우지 『일신』 제2집에 단편소설 「철야(徹夜)」등 3편과 시 「개구리소리」를 실었다. 「개구리소리」는 사망한 언니를 추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천궁(天宮)에서 내다보는 한 조각 반월(半月)이
 고요히 대지 위에 비칠 때
 우리집 뒤에 있는 논 가운데는
 뚝개구리 소리마침 노래합니다
 내 기억이 마음의 향토에서 흘러 넘쳐서
 비애의 눈물이 떨어집니다
 미지의 나라로 떠나신 언니
 개구리소리 듣기 좋아하더니
 개구리는 노래하것만
 언니는 이 소리 듣지못하고 어디 갔을까.

김원봉과 박차정 두 열혈 남녀는 북경에서 사랑을 나누었다. 일본 밀정이 득실거리고 최소한의 생활비 마련도 쉽지 않은 망명지의 신흥이었다. 두 사람이 다 ‘생활’과는 거리가 먼 직업혁명가들이다.

박차정은 문학에 소양이 깊은 의열여성이고, 김원봉 역시 톨스토이와 푸르케네프 등 러시아 문학에 상당한 조예가 있는 혁명가이다. 두 사람은 조국해방운동이라는 공통적인 목표가 있었고, 쉽게 문학적 대화가 이루어지는 동지적 관계가 되었다. 그리고 이를 뛰어넘어 사랑으로 승화되었다.

박차정은 국내에서 항일운동을 하고 있을 때 의열단 의백 김원봉의 소식을 들었을 것이다. 국내에서는 신출귀몰하면서 일제와 싸우고 있는 김원봉의 존재가 신화처럼 전해지고 있었다. 특히 항일운동을 벌이고 있는 청년들에게 김원봉은 ‘신화’와 같은 존재였다. 김원봉을 만난 박차정은 쉽게 그를 연인으로 그리게 되고, 김원봉 역시 귀염성 있고 영특한 박차정을 사랑하게 되었다. 항일 혁명정신이나 마르크스 · 레닌 이론에도 남다른 지식을 갖고 있는 그녀가 김원봉에게는 여간 다행한 상대가 아닐 수 없었다.

일제강점기 부부가 함께 항일 전선에서 싸운 경우는 흔치 않았다. 또 해외에서 여성이 항일투쟁에 나선 경우는 드물었다. 이청천과 부인 이성실이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벌였다. 이성실은 1936년 박차정 등과 함께 민혁명 남경 조선부인회를 결성하여 항일투쟁에 나섰다. 박헌영과 그의 부인 주세죽도 국내외에서 독립운동을 벌인 사례이다. 1920년대 중국 상해를 무대로 항일과 조선공산당 조직활동을 하던 주세죽은 박헌영을 만나 결혼하고, 1927년 여성

단체인 근우회를 결성하여 항일 구국투쟁과 여성 지위 향상 운동을 전개하였다. 박헌영과 함께 블라디보스토크로 탈출한 주세죽은 ‘카레예바(조선여자)’라는 가명으로 모스크바 등지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남편이 일본 경찰에 피체된 뒤에도 항일운동을 계속하고, 1938년 일본밀정이라는 혐의로 소련 경찰에 붙잡혀 5년간 유배되었다. 한국 정부는 2007년 광복절에 주세죽에게 건국훈장을 추서하였다.

김원봉과 박차정은 부부가 함께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한 대표적인 사례를 만들었다. 백범 김구가 윤봉길의거 뒤 피신하면서 중국인 처녀 뱃사공 주애보와 5년여 동안을 함께 한 일이 있었다. 이들은 백범의 표현처럼 ‘유사 부부처럼’ 지냈지만,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독립투쟁을 벌인 것은 아니었다.

김원봉과 박차정은 헝가리 시인 페퇴피의 시를 주고받으면서 사랑과 혁명을 꿈꾸었다. 페퇴피의 「민족의 노래」는 박차정이 김원봉에게 바친 헌사였을 지도 모른다.

민족의 노래

사랑이여
 그대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마저 바치리
 그러나 사랑이여
 조국의 자유를 위해서라면
 내 그대마저 바치리.

산도르 페퇴피(1823~1849)는 조국 헝가리가 합스부르크 왕조의 지배에서 벗어나고자 독립투쟁을 문학운동으로 전개하다가 26세에 전사한 민족시인이다. 어쩌면 두 사람에게 너무 잘 어울리는 시인이고, 시의 내용이었을 것 같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역사를 연구하신 단재 신채호 선생님께



서 정 현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학과 석사과정

어느 덧 68주년 광복절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찌는 무더위와 장마를 불평하던 여유로운 여름날을 보내다 문득 민족의 광복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애국지사들을 떠올려봅니다. 선열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의 평온한 일상은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애국지사들의 피와 땀이 있었음에 그토록 그리던 조국 광복은 이루어졌지만, 송구하게도 오늘날 후손들의 조국이 그저 무탈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최근 일본의 역사왜곡 교과서 문제와 더불어 일본 우익 정치인들의 과거사 부정 발언 등을 둘러싸고 한일 간 외교 마찰을 빚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국사 교육의 확대에 대한 학생들의 역사 인식 부재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선생님께서 활동한 시기는 일제로부터 국권을 침탈당한 시기였습니다. 이에 선생님께서 우리 민족이 당면한 억압적 현실 속에서 국권의 상실을 민족적 과제로 여기시고, 민족 자체의 힘으로 독립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 조국의 광복을 위해 언론, 사상, 민족 교육, 아나키즘 등 다양한 방면에서 일제에 맞선 독립운동가로서 특히 역사 연구와 민족 교



▲ 신채호 선생이 피체되었을 당시 모습

육을 중시하셨습니다. 독립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역사에서 찾으신 것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식민지시기, 일제로부터 빼앗긴 국권을 회복하고자 민족자존과 민족독립의 방안을 제시하며, 민족의 목적지를 찾고자한 민족의 대표적인 선각자셨습니다. 국권침탈이라는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주체적인 역사인식과 민족의식의 고취를 통해 독립운동의 길을 이끄셨던 선생님의 주체정신을 배우고 싶습니다.

선생님에게 있어서 역사는 빼앗긴 조국을 되찾기 위한 희망이었습니다. 역사연구의 결실로써 『최영전』, 『이순신전』, 『을지문덕전』 등 주로 국난을 극복, 타개한 영웅들에 대한 전기를 저술하시어 민족의식과 독립 정신을 불려일으키었고, 특히 우리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국권과 자주성을 발휘하였던 고대사 연구에 주목하고, 고구려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고대사 체계를 정립하셨습니다.

또한 선생님께서 사대사관, 왕조 중심사관, 식민사관 등 전근대적인 사학의 한계를 극복하고, 역사를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으로 정의하여 민중을 중심으로 하는 사학을 주장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일제 침탈이라는 억압적 현실 아래 낙심한 민중들에게 민족적 자긍심을 심어주고, 이러한 민족정신을 바탕으로 독립을 이뤄내고자 하셨습니다. 또한 연구 결과를 집대성한 『조선상고문화사』, 『조선상고사』, 『조선사연구초』 등을 집필하심으로 백암 박은식 선생님과 더불어 근대적 민족사학으로 정립되어 일제와 친일파들이 내세운 식민사관을 극복하고 근대적, 주체적 역사관을 확립하는데 기여하셨습니다.

독립운동의 한 방편으로서 선생님께서 역사를 주목한 이유는 바로 일제에 의해 우리 역사가 왜곡되고 있다는 데에서 기인하신 것이지요. 일제강점기 일제는 한국인에 대한 통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항일민족의식의 성장을 억제하고 한국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역사관, 즉 식민주의 사관을 주장하였습니다. 한민족이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에 지배되어 왔고 스스로 자립할 능력이 없는 정체된 민족으로 강조함으로써 일본의 한국 병탄을 정당화하고자 조작된 억지 논리였습니다. 이러한 식민주의 사학의 잔재가 오늘 날에도 완전히 해소되



▲ 대전광역시 중구에 소재한 신채호 선생의 생가(기념물 제26호)

지 못한 점을 고려한다면, 당대의 사학자로서 선생님께서는 식민주의 사학을 비판하고 자주적인 역사관을 선구적으로 제시해주셨다는 점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후손들에게 많은 교훈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의 동북공정, 일본의 과거사 부정 등 주변국들의 역사왜곡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역사의식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내부적으로는 오히려 역사 교육의 부재가 문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옛날 선생님께서는 억압적 현실의 극복방안을 역사에서 찾으셨으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후손들은 머지않은 역사 속 선생님에게서 현실의 대처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음에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선생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려거든 역사를 읽을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 나라를 사랑하게 하려거든 역사를 읽게 할 것이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씀을 남기셨지요. 당대의 시대적 비극을 주체적인 역사인식과 나라사랑을 통해 극복하고자 노력하신 선생님을 귀감 삼아 오늘 날 우리가 나아갈 길을 찾아야 합니다.

저 역시 민족의 혼을 지키신 선생님의 나라사랑과 희생정신을 잊지 않고, 부족하게나마 후세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족의 위대한 스승, 단재 신채호 선생님을 그리며.

서 정 현 올림



영화 <일대종사>, 영화적 경험으로서의 역사



이 두 희
자유기고가

왕가위 감독의 영화 <일대종사>(2013)는 중국의 무술가 엽문을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이다. 이미 몇 차례 다른 영화들을 통해서 소개되었다시피 엽문은 중일전쟁 시기를 겪으며 홍콩으로 이주하여 영춘권이라는 무술을 전수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왕가위 감독의 영화는 엽문이 중국 광둥성의 불산의 무술계에서 겪은 사건과 관련 인물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여, 훗날 그가 홍콩에 정착한 후 다시 만난 사람들을 통해 과거를 되돌아보는 순서로 진행된다. 물론 엽문은 실존했던 사람이기는 하지만, 앞서 그를 주인공으로 했던 다른 영화들에서도 그의 무술이나 항일운동 경력에 대한 부분은 다소의 허구들이 섞여있었고 이는 왕가위 감독의 영화에서도 크게 다르지는 않다. 다만 영화 <일대종사>에는 영화가 과거의 역사와 가질 수 있는 관계의 특징을 감독의 개성과 함께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영화 <일대종사>의 전반은 엽문의 대사처럼 그의 인생의 봄과 같던 시대를 먼저 그린다. 1930년대의 중국, 아직은 전쟁의 포화가 찾아오지 않았던 군벌 시대. 엽문이 속해있는 불산



의 무술계에 중화무사회의 수장인 궁보삼이 찾아와 자신의 은퇴 전 자신에게 겨룰만한 남방의 무술가를 찾는다. 그리고 엽문이 불산을 대표해서 궁보삼과 무술을 겨루어 이기고 그의 명성을 이어받게 된다. 궁보삼의 외동딸 궁이는 이 같은 결과를 승복하지 못하고 엽문과 다시 겨루고는 훗날을 기약하며 북방으로 돌아간다. 그 후 중일전쟁이 일어나고 시대는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한다. 유복했던 엽문의 생활도 항전 기간 중 궁핍해지며 가족을 잃는 시련을 겪게 되고, 중국 무술계에도 친일세력이 생겨난다. 궁보삼의 수제자였던 마삼은 일제에 부역하며 스승을 거역하게 되고,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궁이는 정혼을 포기하고 돌아온다. 남은 영화의 후반은 항일운동 중 아내와 헤어져 홍콩으로 망명한 엽문이 궁이와 만나며 각자 자신들에게 있었던 일들을 함께 회상하며 이루어진다.

아마도 혼란스러운 중국 현대사의 와중에 엽문과 같은 삶을 살았던 인물이 하나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많은 중국의 무술가들이 전란을 피해 타지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했고, 그들을 포함해 또 다른 많은 사람들도 자신들의 과거를 어떠한 방식으로든 회상하며 다시 꿈꾸었을 것이다. 영화 <일대종사>에도 엽문 뿐이 아니라 사실과 허구가 구분되지 않은 다른 인물들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등장한다. 결국 왕가위 감독은 영화 속에서 자신의 색깔을 더해 지난 시대에 대한 후일담을 그리려 한 것은 아닐까. 그리고 그렇게 과거에 대한 애수어린 감정을 그리는 것이 영화라는 매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영화 속에는 몇 차례 인상적인 대결 장면이 있다. 그 중에 홍콩에서 엽문을 만난 궁이가

회상하는 결투 장면이 하나 있다. 궁보삼의 복수를 위해서 마삼과의 기차역에서 만났을 때의 일이다. 둘의 대결이 시작되고 플랫폼 옆의 기차가 곧 출발하기 시작했을 때, 관객들을 아마도 저 기차가 다 지나가기 전에 둘의 싸움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둘의 싸움이 점점 치열해질수록 기차 역시 더욱 빨라지며 끊임없이 길어지는 듯 보인다. 과연 이 기차는 얼마나 길어질까. 그리고 기차의 길이를 결정하는 것은 누구일까? 그 순간 우리는 우리가 보고 있던 영화 속의 현실은 사라지고 대신 하나의 무대가 현실을 대신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 싸움이 끝나지 않고는 저 기차도 결코 지나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 말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재현 혹은 이야기라는 당연한 사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된다. 우리는 영화를 보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일대종사>에는 엽문의 부인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한국 여배우가 등장한다. 비록 영화에 출연하는 시간은 매우 짧지만, 그녀의 존재는 극 중 엽문에게 중요한 추억의 대상으로 자리 잡는다. 이야기의 전개에는 거의 개입하지 않고, 분명한 대사도 없이, 그 이미지로만 남는 여배우는 주인공에게 행복했던 시절에 대한 애절한 향수와 쓰라린 이별의 상처를 자극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다시 말해 그녀가 가지는 의미는 모호할 수 있더라도 엽문 만큼이나 관객들에게 그녀의 얼굴은 구체적인 영화적 대상으로 강렬히 남는 것이다. 이는 사실 <일대종사>의 다른 배우들에 대해서도 사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마찬가지로서, 감독은 구구절절한 사건이나 배경의 설명 보다는 이러한 이미지들이 영화 속에서 이야기를 대신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같다.



▲ 영화 <일대종사> 중에서



왕가위 감독의 <일대종사>에는 이와 같이 현실이나 역사에 대한 영화적 개입이 두드러진다. 지금까지 역사적인 주제를 다루는 많은 영화들이 있었고, 각각의 영화들은 고증이나, 각색, 인터뷰를 통한 증언 등의 방법으로 그 설득력? 자신이 역사를 말하고 있다는 당위성을 높여왔다. 혹은 비슷한 방법으로 자신이 현실과 닿아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영화 <일대종사>는 근현대사 속의 실존 인물을 다룬다는 역사성에 대해서 무술영화와 같은 영화 장르적인 관습성을 부딪치게 만들고, 감독 자신의 개성이라 할 수 있는 지금까지 그의 영화들에서 반복되었던 요소들? 도회지적인 남녀 간의 절제된 연애감정이나 그 뒤를 잇는 미련과 애수, 그리고 금언적이고 난문 섞인 대사들을 남겨놓는다. 그 결과 영화는 지난 과거를 현재화하면서도 그것이 역사가 아닌 하나의 영화로서만 기능하도록 의도적으로 제한한다. 다시 말해 <일대종사>의 이야기는 중국의 현대사와 실존인물과 관련된 역사적인 무엇일 뿐, 역사나 과거의 사건이나 인물 자체는 아닌 것으로 남겨지는 것이다.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과거의 사실이나 사건이 시작과 끝이 있는 이야기가 되는 순간, 그리고 그러한 순간이 때로는 현실보다 더 현실적인 영화로 재현으로 다가올 때, 관객이 보고 기억하는 것은 그 이야기 속의 사건이라기보다는 영화일 뿐이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영화를 통해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과거나 어느 다른 장소에서 볼 수 있었던 것과 정말 같은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 없다. 다만 영화를 보는 순간 우리는 몰입을 위해서 그 사실을 잠시 잊을 뿐이다.

이러한 영화와 현실의 일치에 대한 문제의식은 비단 과거의 역사를 소재로 하는 영화에서만 아니라 현재 만들어지는 거의 모든 영화들의 고민과 닿는다. 영화가 촬영하는 대상이

실제 배우와 공간이 아닌 컴퓨터그래픽과 후반작업을 통해 상당 부분 수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영화 제작의 방식이 된 지금 과연 우리가 영화를 통해 보는 것은 무엇이 진짜이며 또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 하지만 처음부터 영화의 기원에는 볼 수 있는 대상으로서 현실만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것은 마술만큼이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관계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아왔다. 사진 촬영이 있는 그대로를 기록할 수 있다는 것 역시도 하나의 신화였으며 어차피 우리는 일어나는 사건의 모든 과정을 다 보지 못하며 그 결과의 일부만을 취하여 받아들일 뿐이다. 처음부터 전지적인 힘이란 없었던 것이다. 영화 <일대종사>는 그러한 영화적 경험의 한계를 구태여 숨기려 애쓰지 않았을 뿐이며, 영화 속의 인물들이 과거에 대한 향수에 젖듯이 결코 닿을 수 없는 대상에 대해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영화적 태도를 재확인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현재의 영화 제작 조건이 크게 바뀐 것은 아니다. 영화의 대상이 실재하는 인물인지 컴퓨터그래픽 합성을 통한 효과인지와 무관하게 지금까지 영화가 무엇인가를 보고자 하는 우리의 눈을 대신할 수 있었다면 그것은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마치 우리의 언어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더라도 우리의 말과 글이 여전히 기능하듯이 말이다. 결국 매체를 통한 인식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자기반성과 조금 더 신중해진 태도를 가질 수 있다면, 앞으로도 영화는 과거를 그리고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에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 영화 <일대종사> 중에서

여성의식 향상과 민중계몽에 앞장 선 박원희



이 윤 옥
시인, 한일문화어울림연구소장

흑한의 눈보라 속
펼럭이는 만장으로 슬픔을 감추고 떠난 입
세 살배기 어린 딸
어이 남기고 서둘러 가셨는가!

많이 배우고 잘난 여자들
일제에 빌붙어 동포를 팔아먹고
더러운 입 놀려 호화 호식할 때

배운 여자 일수록
구국의 대열에 앞장서라 외치던
서른 해 짧은 생 마감하며 던진 화두

죽어서도 차마 놓지 못할
광복의 그 찬란한 꿈

고이 간직하고 떠나시라고
가시는 걸음걸음 흘뿌리던
희고 고운 하얀 눈송이.

박원희(朴元熙 1898.3.10 ~ 1928.1.5)

1928년 1월 11일 동아일보에는 박원희 애국지사의 장례행렬 사진이 크게 실렸다. 한겨울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수많은 만장과 추도객이 뒤따르는 이 사진은 일제강점기에 보기 드문 장례행렬 사진이다. 서른 살로 요절한 박원희 애국지사는 서울 사람으로 경성여자고등 보통학교를 졸업한 뒤 철원보통학교 교사로 3년간 재직하다 일본에 유학하였다. 귀국 뒤 여성운동에 뛰어들어 여성동우회(女性同友會)를 창립하였고, 중앙여자청년동맹(中央女子青年同盟), 근우회(槿友會) 등에서 여성의 권익향상과 계몽운동에 헌신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200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이 윤 옥 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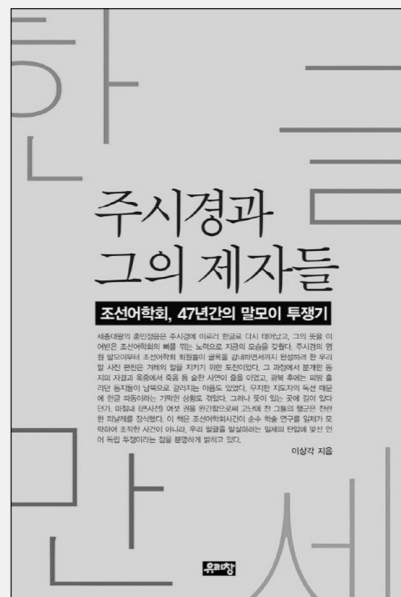
《문학세계》 시 부문 등단. 세계문인협회 정회원. 한일문화어울림연구소 소장으로 왜곡된 역사를 시를 통해 밝히는 작업을 하고 있다. 특히 사회의 관심에서 멀어진 여성독립운동가를 발굴하여 시로 승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시집으로는『서간도에 들꽃 피다』1·2·3, 시화집『나는 여성독립운동가다』, 영문판 한국여성독립운동가 시집『41heroines, flowers of the morning calm』, 『사쿠라 불나방』외 다수. (누리편자:59yoon@hanmail.net)



한글 만세, 주시경과 그의 제자들

- 조선어학회 47년간의 말모이 투쟁기

(이상각 지음 / 유리창)



세종대왕의 훈민정음은 주시경에 이르러 한글로 다시 태어났고, 그의 뜻을 이어받은 조선어학회의 뼈를 깎는 노력으로 지금의 모습을 갖췄다. 주시경의 염원 말모이부터 조선어학회 회원들이 굴욕을 감내하면서까지 완성하려 한 우리말 사전 편찬은 겨레의 얼을 지키기 위한 도전이었다. 그 과정에서 분개한 동지의 자결과 옥중에서 죽음 등 숭한 사연이 줄을 이었고, 광복 후에는 피땀 흘리던 동지들이 남북으로 갈라지는 아픔도 있었다. 무지한 지도자의 독선 때문에 한글 파동이라는 기막힌 상황도 겪었다. 그러나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마침내 《큰사전》 여섯 권을 완간함으로써 고난에 찬 그들의 행군은 찬란한 피날레를 장식했다. 이 책은, 조선어학회 사건이 순수 학술연구를

일제가 모략하여 조작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 말글을 말살하려는 일제의 탄압에 맞선 언어 독립투쟁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추천사

우리 역사에 해박한 식견을 갖춘 저술가 이상각 선생이《한글 만세, 주시경과 그의 제자들》이라는 생생한 증언을 담은 명저를 펴내니 참으로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읽고 또 읽으며 새로운 깨우침에 감격 또 감격합니다. 주시경 선생과 조선어학회 선열들의 행적을 받드는 일

에 매달려 사는 나도 미처 알지 못한 일들을 현장에서 보는 것처럼 소상히, 감동적으로 이야기해주니 이 고마운 정을 무어라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김종택(한글학회 회장)

매일 숨 쉬면서도 공기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듯 우리는 겨레의 얼이 담긴 말의 그릇인 한글의 소중함을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날같이 가치관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겨레의 아이들은 삶의 주인으로 바르게 서야 합니다. 우리말과 글을 소중하게 여기면 생각과 정신이 바르게 됩니다. 이 책에는 우리말과 한글이 우리 삶의 바탕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곧 목숨이라 생각한 분들의 정신이 고스란히 살아 있습니다. 이 책은 이 땅의 주인으로 커갈 우리 아이들의 말과 글과 삶을 하나로 단단하게 붙들어 매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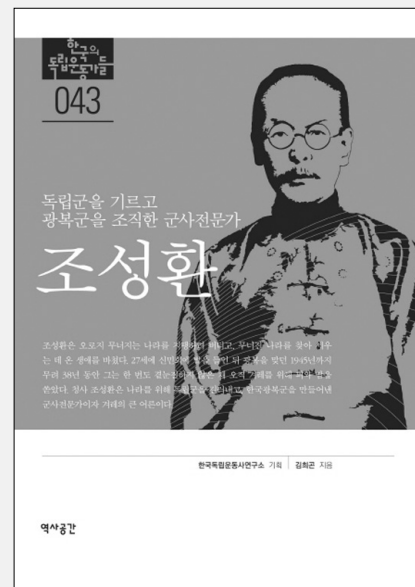
조장희(전국국어교사모임 이사장, 신일중학교 국어 교사)



조 성 환

- 독립군을 기르고 광복군을 조직한 군사전문가

(김희곤 지음 / 역사공간)



임시정부 군무부장 통수부 막료와 판공처 주임 대한독립촉성 국민회 위원장

오로지 무너지는 나라를 지탱하려 버티고, 무너진 나라를 찾아 세우는 데 온 생애를 바쳤다

군사에 있어 훌륭한 장령(將領)일 뿐 아니라
강직하고 고결한 인격의 유소자로서 진실로 존경할 만한 애국 영수이었던 만큼 일반의 애도하는 정도 자못 높은 바인데…….

—『자유신문』1948년 10월 9일

신문 기사는 조성환을 훌륭한 군사지도자이요,
강직하고 고결한 인격인이며, 그래서 존경할 만

한 애국 지도자라고 평가하였다. 청사 조성환은 27세부터 1945년까지 무려 38년 동안 한 번도 결눈질 하지 않은 채 오직 겨레를 위해 피와 땀을 쏟았다. 그는 무너진 나라를 위해 독립군을 길러내고, 한국광복군을 조직한 군사전문가로 구국투쟁을 위해 온 생애를 바친 독립운동가였다.

조성환은 대한제국 무관학교를 졸업한 장교출신으로 1907년 신민회에 발을 들인 뒤 애국 계몽운동에 이바지하고 베이징으로 망명하여 독립운동의 교두보를 확보한 뒤 만주로 이동하여 독립전쟁에 기여하였다. 1930년대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합류한 그는 1940년 충칭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한국광복군을 창설했을 때 군사업무를 총괄하는 최고의 책임자인 군무부장을 맡았으며 통수부의 막료와 판공처 주임으로서 군정(軍政)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였다.

군사업무를 군령과 군정으로 나눈다면 조성환은 군정(軍政)을 총괄하는 인물이었다. 그러나 한국광복군이나 독립군에서는 대개 총사령관 이청천이나 2지대장 이범석을 우선으로 여기고 정작 군무부장이던 조성환에 대한 기록이나 연구는 많지 않았다. 이에 필자는 조성환의 삶의 자취를 찾고 뒤늦아 가면서 그의 생애를 복원하고 의미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필자는 조성환의 생애에서 독립운동의 행적으로 여섯 가지에 주목하였다. 첫째, 베이징을 독립운동의 주된 거점으로 만들었다. 그곳에서 신해혁명의 소식을 나라 안팎으로 알리고, 인재 را 양성하면서 독립운동의 교두보를 구축하였다. 둘째, 무관학교 출신이라는 장점을 살려 독립군 양성과 독립군 조직 통합 작업에 매달렸다. 셋째, 1933년 이후 12년 동안 임시정부의 군사업무와 전시체제 구축에 힘을 집중하고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만주에서 활약하던 이청천의 한국독립군을 중국 관내로 이동시키는 작업을 하고, 군사특파단을 꾸려 전방으로 나아가 광복군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다시 임시정부 군무부장, 통수부 막료와 판공처 주임으로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넷째, 그는 자리에 매달리지 않는 큰 배포를 지녔다. 좌우 통합정부를 구성하면서 선뜻 군무부장 자리를 내놓은 일은 흔한 경우가 아니었다. 다섯째, 고국으로 돌아온 뒤에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이어가는 선상에서 한 걸음도 비켜나지 않았다. 대한독립촉성국민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임시정부 대표라는 점을 내세웠다. 여섯째, 대중교를 독립운동의 정신적 바탕으로 삼았다. 1920년대 북간도 지역에 대중교 근거지를 확보하고 이를 중심으로 한인동포사회를 경영하여 독립군 조직을 굳건히 버티도록 만들었다.



이 윤 재

- 우리말 우리역사 보급의 거목

(박용규 지음 / 역사공간)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한글학자로서
실천적 교육자
우리의 민족성을 보존하기 위해
일제와 투쟁한 비타협 민족주의
역사가이자 독립운동가**

이윤재는 일제 시대의 대표적인 한글학자이자 실천적인 교육자로 일평생 독립운동을 하면서, 일제의 억압에서 벗어날 열쇠를 우리 민족에게 쥐어주었다. 그 열쇠는 바로 우리말과 우리역사의 보급이었다. 우리말과 우리역사를 제대로 알아, 이를 바탕으로 우리민족이 대동단결하여 일제와 싸워 독립을 쟁취하자고 호소하였다.

국어학자 주시경의 주장을 계승하여 우리말과 한글을 연구하고 보급한 최현배·이극로·신명균·이희승·장지영 등과 함께 조선어연구회, 조선어학회에 참여하여 언어독립운동인 한글운동을 전개하였다. 한글운동은 일제의 언어동화정책에 대한 반역이었기에, 일제로부터 탄압을 받았다. 조선어학회의 중진이었던 이윤재도 일제의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함흥감옥에서 복역하다가 일제의 고문 후유증으로 1943년 12월 옥사하였다. 일제강점기 일생을 민족혼을 보급하기 위해 활동하다가 침략자들에게 희생되었다.

이윤재의 글은 일제의 탄압으로 삭제되는 경우가 많았고, 책은 발매 금지되었다. 그의 저서가 일제에 대한 강렬한 저항이 담긴 내용이 많았기에 탄압을 받았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그는 지칠 줄 모르고 신문과 잡지에 수많은 우리말글 연구와 사론을 남기는 활동을 지속하였다. 동시에 3·1운동에 참여하고 홍사단과 수양동우회 활동을 지속하였으며, 우리말글을 연구하고 조선말큰사전을 편찬하고자 조선어연구회와 조선어학회에 핵심인물로 활동하였다.

필자는 이윤재에 대해 새롭게 세 가지를 주장하였다. 첫째, 이윤재는 일제강점기 우리말글을 가장 많이 보급한 한글운동가였다. 그는 우리말을 말살하던 일제에 맞서, 조선어학회 동지들과 함께 한반도 전역과 만주까지 곳곳을 찾아다니며, 1924년에서 1937년까지 14년 동안 총 48회 148일간에 걸쳐 우리말글 강연·강습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동시에 우리말 규범 수립운동에도 커다란 업적을 남겼다.

둘째, 이윤재가 수십 편의 사론과 저서를 통해 민족의식을 고취한 민족주의 역사가였다는 사실을 남북한에서 최초로 실증적으로 밝혔다. 사론을 통해 그는 자주정신, 자가정신(自家精神), 조선아(朝鮮我)의 정신을 내세워, 독립을 쟁취하자고 역설하였다. 이것이 그의 역사 인식의 요체였다. 그의 반일 민족주의 역사인식은 일제에 의해 발매 금지 처분된 『성웅 이순신』(1931)에 잘 드러나 있다.

셋째, 이 책은 남북한에서 최초로 나온 이윤재 전기로 그의 생애를 제대로 복원하였다. 독립운동가로서 한 평생을 보낸 그의 일대기를 기술하였다. 우리민족이 독립운동을 하는 것이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것은 강탈당한 물건을 되돌려 받는 것과 같다고 일제 재판부에 명쾌하게 밝힌 점, 안창호가 조직한 홍사단에 이윤재가 1922년 6월에 가입한 것, 경신학교 교원으로 있던 1933년에 제자들에게 조선의 독립을 예견하는 발언을 한 것, 자신의 집을 조선어학회 회관 건립 부지로 내놓은 것, 이윤재를 고문치사한 조선인 형사의 이름이 김석묵(창씨명 시바타)과 안정묵(창씨명 야스다)이라는 사실과 주시경이 1910년경에 한글 명칭을 창안하였다고 주장한 사실 등을 새로이 밝혔다.

이처럼 이윤재는 일제강점기에 민족의 영혼을 담은 그릇인 우리말과 민족정신의 결정체인 우리 역사를 유지하여 민족과 민족성을 영구히 보존하려고 일제와 투쟁한 비타협 민족주의자였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우리말과 우리역사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빨치산 대장 홍범도 평전

(김삼웅 지음 / 현암사)



‘독립전쟁의 전설’ 홍범도 장군 서거 70주년 기념 출간 비범한 용기와 지휘력, 우리 현대사의 숨겨진 영웅을 되찾다! 2013년 10월 25일은 홍범도 장군 서거 70주년이다. 그의 유해는 지금까지 이역만리 카자흐스탄에서 망각과 메아리조차 없는 망향가 속에 묻혀 있다. 일제가 가장 겁냈던 의병대장, 부하들과 주민들이 믿고 아끼고 따르던 대한의용군 사령관, 정통 무관 출신이 아닌 산포수 출신의 의병장이지만 누구보다 우수한 지략과 전술로 일제와 싸웠던 홍범도 장군은 해방 70년이 가까운 세월에도 ‘유해 귀환’ 논의조차 없는 ‘망각의 독립군’이 되어 있다. 홍범도는 머슴 출신의 독립운동가였다. 특권을 누려온 이

들이 조국을 배신할 때 그는 누구의 지시나 부름도 없이 스스로 의병이 되었다. 간도와 극동 러시아의 춥고 험준한 산악지대를 넘나들면서 빨치산 대장으로서 일본군을 토벌하고, 독립군 부대를 조직해 국치 이래 최초로 국내 진입작전을 펴 일제를 공포에 몰아넣었다. 비범한 지휘력으로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의 승리를 주도한 그는 해방 이후 남쪽에서는 ‘좌파’로 배척되어 잊힌 인물이 되었다. 우리 현대사의 문제적 인물들의 참모습을 복원하는 평전 작업에 매진해온 김삼웅 선생의 신작 『빨치산 대장 홍범도 평전』은 항일 무장투쟁의 주역 홍범도의 뜨거운 삶을 진혼하며 젊은 세대에 전하고자 한다. 최근 ‘역사 교과서’ 파동을 비롯해 현대사를 둘러싼 ‘인정투쟁’이 격심하다. 특히 항일과 친일의 사실과 기억은 아직까지 금기와 왜곡의 장막을 두르고 ‘백년 전쟁’이 지속되고 있다. 때마침 ‘여천 홍범도장군 기념사업회’ 주최로 카자흐스탄에서 ‘70주기 추모식과 학술대회’를 비롯하여 이 책의 봉헌식이 열린다. 모시는 사람들만이 아닌 ‘우리’의 영웅 홍범도를 기억하기 위해.

■ ‘하늘을 나는 장군’ 여천 홍범도 장군은 누구인가!

항일 무장투쟁의 독보적 존재 여천 홍범도 장군(汝天 洪範圖, 1868~1943). 홍범도는 일본군이 ‘하늘을 나는 장군(飛將軍)’이라고 부를 정도로 신출귀몰한 유격전술로 일본군을 격파해 명성을 날렸다. 당시 평안도 지방에서는 ‘축지법을 구사하는 홍범도 장군’이라는 ‘전설’이 나돌 만큼 민중의 영웅으로 추앙되었다. 홍범도는 일제의 총포화약류 단속법을 거부하면서 최초로 산포수 의병부대를 조직하고, 조선독립은 무장투쟁으로만 쟁취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한평생을 일관했다. 그의 적살 대상은 왜적뿐만이 아니었다. 민족을 배반한 일진회 회원과 친일파도 가차 없이 처단해 민족의 의기를 살리고자 했다. 일제강점기 많은 항일 독립운동가들은 중국 동북지역과 러시아 해삼위(블라디보스토크) 지역에서 게릴라 전술 즉 ‘빨치산’ 투쟁으로 일제와 싸웠다. 홍범도는 그러한 항일 빨치산 전투의 주역이었다. 일제강점기 독립투쟁의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던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은 홍범도의 주도로 승리할 수 있었다. 홍범도는 자신의 권위나 이익을 내세우지 않는 비범한 인격, 열세를 극복하는 탁월한 지휘 능력과 기발한 전술 작전으로 항일투쟁의 전설이 되었다. 홍범도는 불행하게도 스탈린의 한인 강제이주정책으로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으로 밀려가 1943년 10월 25일 75세를 일기로 그곳에서 서거했다. 홍범도의 치열한 투쟁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그는 ‘존재는 낮익지만 실체는 낯선 인물’로 묻혀 있다. 해방 후 반공을 국시로 한 남쪽에서 홍범도는 ‘사회주의’ 계열로 들쭉되어 배제된 데다, 독립운동 연구가 지역적으로 편중되고, 머슴 출신인 그를 기릴 만한 후손이 남아 있지 않았던 까닭도 크다. 해방 70주년을 앞둔 오늘에 이르기까지 장군의 유해는 천만리 먼 이역에 쓸쓸히 누워 있다. 『빨치산 대장 홍범도 평전』은 헌신적으로 민족의 독립을 위해 무장투쟁을 지휘한 홍범도 장군의 파란의 삶을 생생히 복원한다. 전문가들의 평가와 역사적 자료를 더해 홍범도 장군의 활동에 대한 그간의 오해와 오류를 바로잡고자 하였다. 1부에서는 ‘빨치산 대장’으로 항일투쟁의 주역으로 활약한 청장년 시기를 조명한다. 곡절 가득한 성장사와 청년기의 방랑, 산포수 의병대의 조직과 혁혁한 전과, 일제에 의한 아내와 아들의 죽음, 간도와 연해주에서의 숭한 항일 전투, 대한독립군 창설과 국내진공 작전,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의 전투 상황이 생생하게 드러난다. 2부는 러시아 연해주로 건너간 이후 시련 속의 노년기를 기술한다. 청산리 전투 이후 일본군의 보복과 1920년 경신참변의 전말, 대종교에 심취한 단학회 활동, 고려공산당 내의 주도권 파쟁으로 발생한 자유시참변 이후의 고난, 레닌·트로츠키와의 만남, 소비에트 정권 하에서 강제이주와 쓸쓸한 말년이 장렬하게 펼쳐진다. ‘통일조국의 사표’로서 홍범도를 기리는 필자는 70주기를 기념하고 현재 짝 막힌 남북관계를 푸는 계기로써 ‘홍범도 장군 유해 귀환 운동’을 제안한다.

제13차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이사회 개최



본회 제13차 이사회가 지난 9월 13일(금) 한국프레스 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이일선 사무처장의 사회로 제9차년 사업 보고, 감사보고, 결산서 승인 및 제10차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승인, 신임임원 승인 및 임원변동의 건 등이 처리되었다.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창립 9주년 기념식 및 정기 총회 개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자주 독립 정신과 애국 애족 정신을 널리 선양하기 위하여 창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회가 창립 9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10월 10일 (목) 『창립 9주년 기념식 및 정기 총회』를 개최하였다.

1부 기념식에서는 곽태원 본회 부회장이, 2부 총회에서는 이일선 사무처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특히 제4기 회장에 김자동 現회장이 선출되었다.

제9기 독립정신 답사단 영상물 관람으로 시작된 이 날 행사에서는 답사 기행문 시상, 제9차년 사업, 감사 보고 및 제10차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승인, 제4기 회장 및 임원 선출 등이 의결되었으며 식후 행사로 ‘조국으로 가는 길’ 전시회 단체 관람이 이루어졌다.



청사 조성환 선생 순국 제65주기 추모식 개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무위원 겸 군무부장을 역임하면서 한국광복군 창설의 기틀을 마련한 청사(淸蓑) 조성환 (1875.7~1948.10) 선생 65주기 추모식이 7일 오전 11시 효창원 조성환 선생 묘전에서 열렸다.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가 주관하고 국가보훈처와 광복회가 후원한 이 날 행사는 이정훈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국가보훈처장, 광복회장의 추모사와 조성환 선생의 약력 보고, 유족대표 인사(손녀 조은옥), (사)3.1여성동지회의 추모가 등으로 구성되었다.

조성환 선생은 1906년 안창호, 이동녕, 김 구 선생 등과 함께新民회를 조직해 구국운동을 했다. 1907년 중국 베이징(北京)으로 망명한 선생은 1916년 9월 신규식, 민충식, 박은식 선생 등과 체화동락회를 조직, 항일운동에 전념했고 박달학원을 설립해 청소년 교육에 힘썼다.

1918년 11월에는 39명의 대표 중 1명으로 길림에서 대한독립선언을 발표했으며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제1회 의정원회의에서 노령 대표의원 및 군무차장에 임명됐다.

1925년 3월 김혁, 김좌진, 나중소 등과 함께新民부를 새로 조직, 외교부 위원장을 거쳤고 1932년 임시정부 국무위원에 선임된 이후 1945년 광복할 때까지 군무부장, 군사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광복군 창설의 기틀을 마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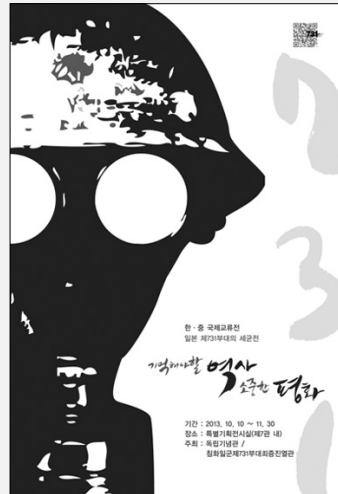
2013년 국제교류 특별기획전 ‘일본 제731부대의 세균전’ 개최

일제가 중국침략시기 국제조약을 무시하고 비밀리에 만주지역에서 자행한 제731부대의 반인륜적인 세균실험 및 인체실험은 중국은 물론 주변국 국민들까지도 희생시킨 잔인한 범죄였다.

독립기념관에서는 중국 침화일군 제731부대죄증진열관과 공동으로 일본 제731부대 사진자료와 실물자료를 통해 일본이 자행한 야만적이고 비인도적인 침략만행을 알리고 이를 통해 새로운 동아시아의 평화를 증진하고자 국제교류 특별전을 마련하였다.

살아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자행한 동상실험이나 독가스실험 등 일명 ‘마루타’ 용으로 사용된 30여 가지의 도구와 함께 이 실험을 위해 특별 이송된 한국인 피해자 6명에 대한 관련 자료도 국내 처음으로 공개된다. 아울러 731부대원들의 인체실험에 참회와 중국에서 1990년 제작된 제731부대 관련 영상 ‘흑태양(黑太陽) 731’에 대한 영상자료를 통해 일제가 자행한 반인륜적이고 비인도적인 행위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전시회를 위해 중국이 731부대 실물자료를 국외기관에 대여한 것은 최초이며, 국내에서도 일본군 제731부대의 만행을 알리는 실물자료 및 사진자료 전시 역시 처음이다.



1. 전시개요

- 전시회명 : 2013 국제교류 특별기획전
일본 제731부대의 세균전 “기억해야할 역사 소중한 평화”
- 전시기간 : 2013. 10. 10 (목) ~ 11. 30 (토)
- 전시장소 : 독립기념관 특별기획전시실
- 전시주제 : 일본 제731부대의 세균전
- 전시구성
 - 국제교류전을 개최하며
 - 관동군 제731부대설립
 - 관동군 제731부대의 세균실험
 - 세균전을 위한 생체실험 피해
 - 끝나지 않는 세균전
 - 기억해야할 역사 소중한 평화
- 전시자료 : 세균배양상자, 세균폭탄 등 62건 89점

윤세주 열사·이원대 열사 합동추모제 및 조선의용대 창설 75주년 기념국제학술회의 개최



지난 10월 10일(목) 서대문 독립공원 독립관에서 ‘윤세주 열사·이원대 열사 합동추모제 및 조선의용대 창설 75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가 개최되었다.

(사)석정 윤세주 열사 기념사업회와 덕산 이원대 열사 기념사업회가 주최한 이번 한중일 국제학술회의는 조선의용대의 항일 독립투쟁사를 재조명하고, 조국의 독립을 위한 항일전

선에 몸 바쳐 뛰어든 조선의용대원들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독립정신을 기리었다.

조선의용대는 1938년 10월 10일 중국의 한커우(漢口)에서 결성한 조선민족혁명당(金元鳳)·조선민족해방동맹(金星淑)·조선혁명자연맹(柳子明)·조선혁명청년연맹(崔昌益) 등 중국본토에서 활약하던 4당의 연합체인 조선민족전선연맹의 군사조직으로 두 열사는 조선의용대 항일독립투쟁에 앞장선 인물이다.

제81주기 이봉창 의사 추모식 개최

지난 10월 10일(목) 이봉창의사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열린 추모식에는 안중현 서울지방보훈청장을 비롯해 독립운동관련 단체 대표, 광복회원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추모식은 홍인근 기념사업회 이사의 약사보고와 기념사업회장의 식사에 이어 보훈처 차장, 광복회장의 추모사, 헌화 등 순으로 진행되었다.

1901년 8월10일 서울에서 출생한 이봉창은 1931년 1월 중순 항일독립운동에 투신하고자 독립운동의 중심지였던 중국 상하이로 건너가 그 곳에서 한인애국단의 김구 단장을 만나 일왕 폭살계획을 세웠다.

1932년 1월8일 도쿄 경시청 앞에서 일왕 행렬을 기다렸다가 행렬이 나타나자 일왕을 향해 폭탄을 투척했으나 폭탄은 일본 궁내대신이 탄 마차 옆에 폭발해 일장기기수와 근위병이 탄 말 두 마리만을 넘어뜨리고 일왕 폭살에는 실패했다.

현장에서 체포된 이봉창은 1932년 9월 30일 도쿄 대심원에서 사형을 언도받고 1932년 10월10일



오전 9시2분 이치가야형무소에서 순국했다.

히로히토 폭살에는 실패했지만 이봉창의 장거는 1930년대 한국독립운동사를 장식하는 의열투쟁의 선봉으로 임시정부를 비롯한 독립운동전선에 새로운 활력소로 작용했다.

또한 이봉창의 장거는 이후 1932년 4월29일 윤봉길 의사의 상하이 홍커우공원 의거가 일어나도록 하는 기폭제가 됐으며, 한·중민의 감정대립도 씻는 계기로도 작용했다.

일본에 있던 이봉창의 유해는 1946년 6월30일 국내로 봉환돼 효창공원에 안장되었다.

정부는 그의 공훈을 기려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했다.

‘김규식의 남북협상과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 학술회의 개최



10월 29일(화) 서울시청 시민청 워크숍룸에서 2013 우사 학술회의 ‘김규식의 남북협상과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이 개최되었다.

민족의 선각자 우사 김규식은 1948년 4월에 백범 김구선생과 함께 전 조선 정당 사회단체 연석을 진행하였다. 비록 역사는 그의 소망대로 전개되지 않았지만 남북화해와 평화를

염원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훌륭한 민족지도자로서 추앙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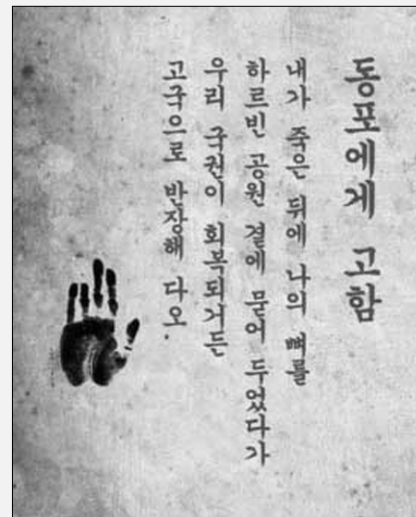
이에 우사김규식연구회는 이번 학술회의를 통해 65년 전의 남북협상을 재조명하고, 김규식 선생의 고견과 역사적 활동을 되새겨보며, 오늘의 한반도에 대결과 전쟁 대신에 화해와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로 나가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안중근 의사 하얼빈 의거 104주년 기념식 개최



중국 하얼빈 역에서 일본 제국주의의 선봉이었던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사살, 우리 민족의 독립의지를 만천하에 알린 ‘안중근 의사 의거 104주년 기념식’이 지난 10월 26일 오전 10시, 남산에 있는 안중근 의사 기념관 강당에서 (사)안중근 의사 숭모회 주관으로 열렸다. 기념식에는 최완근 국가보훈처 차장, 독립운동관련 단체장, 광복회원, 시민, 학생 등 4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안중근 의사 기념관장의 약전봉독, 학생대표의 의거 이유 낭독, 숭모회 이사장의 기념식사, 보훈처 차장, 광복회장의 기념사, 장학금 수여, 기념공연, 안중근 노래 합창, 만세삼창 등 순으로 진행되었다.

1879년 황해도 신천에서 태어난 안중근 의사는 1909년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하얼빈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우덕순 등과 함께 거사 계획을 세웠다. 10월 26일 오전 9시 무렵, 하얼빈 역에서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향해 총을 쏘아 3발 모두 명중시켰다. 안중근 의사는 1910년 2월 14일 사형을 선고받고, 1910년 3월 26일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안중근 의사의 공훈을 기리어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하였다.



조선민족대동단 起義 제94주년 기념식 및 총회 개최



오는 11월 28일 서대문 독립공원 내 독립관에 서 조선민족대동단 起義 제94주년 기념식 및 총회를 개최한다.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연계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한 조선민족대동단은 국내외 지부를 설치하고, 단원과 독립운동 자금을 모집했으며 특히, 고종의 아들 의친왕 이강 상하이 탈출 사건을 주도하였다. 이 사건으로 조선민족대동단 조직이 발각되어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게 된다. 조선민족대동단의 역사적 의의를 기리고 선열의 항일독립정신을 계승하고자 설립된 조선민족대동단기념사업회는 이번 기념식 및 정기총회 때 제11차년 사업과 활동 보고 및 감사 보고, 정관 개정, 제12차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을 의결한다.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2013년 9월, 10월 회비납부자 명단◆

회원명	9월	10월	회원명	9월	10월	회원명	9월	10월
강만길	20,000		박익란	30,000	30,000	이학노	20,000	20,000
강재욱	20,000	20,000	박정근	30,000	30,000	이학효	10,000	10,000
강찬모	20,000	20,000	박형순	10,000	10,000	이향중	30,000	30,000
곽태원	50,000	50,000	반병률	10,000	10,000	이현진		10,000
권경업	50,000	50,000	배해원	30,000	30,000	이해준	20,000	20,000
권상운	10,000	10,000	백낙청	10,000	10,000	이화순	30,000	30,000
권영관	10,000	10,000	변병식	100,000	100,000	이호현	20,000	20,000
길사원	10,000	10,000	방인섭	30,000	30,000	이후삼	10,000	10,000
김경애	10,000	10,000	서영훈	30,000	30,000	임재경	10,000	10,000
김광림	30,000	30,000	서흥관	30,000	30,000	임진택	5,000	5,000
김광재	5,000		성인제약(주)	100,000	100,000	임형진	10,000	10,000
김동현	10,000	10,000	신명식	10,000	10,000	장두원	20,000	20,000
김봉현	30,000	30,000	신영연	10,000	10,000	장팔순	10,000	10,000
김삼웅	10,000	10,000	신영한	10,000	10,000	정동익	30,000	30,000
김상백	30,000		심재권	30,000	30,000	정만기	30,000	30,000
김성배	10,000	10,000	양인선	10,000	10,000	정범구	10,000	10,000
김선군	10,000	10,000	양진호	10,000	10,000	정재경	10,000	10,000
김성곤	10,000	10,000	엄기남	10,000	10,000	정지완	5,000	5,000
김성록	10,000	10,000	염승훈	10,000	10,000	정철승	30,000	30,000
김소중	10,000	10,000	오성근	10,000	10,000	정환기	10,000	10,000
김숙정	50,000	50,000	오승숙	10,000	10,000	조기식	10,000	10,000
김연실	10,000	10,000	오은주	20,000	20,000	조명숙	10,000	10,000
김영방	10,000	10,000	오정수	20,000	20,000	조세현	10,000	10,000
김영일	10,000	10,000	오학래	10,000	10,000	조원록	50,000	50,000
김용수	5,000	5,000	우상호	30,000	30,000	조영빈	5,000	5,000
김원규	10,000	10,000	원영애	30,000	30,000	조용준	30,000	30,000
김 위	20,000	20,000	유기수	10,000	10,000	조인형	10,000	10,000
김위현	50,000	50,000	유상수		10,000	조정훈	30,000	30,000
김윤수	30,000	30,000	유은숙	10,000	10,000	조준표	10,000	10,000
김자동	100,000	100,000	유원목		10,000	조회환	10,000	10,000
김재홍	10,000	10,000	유종하	10,000	10,000	주세영	30,000	30,000
김정경	10,000	10,000	윤경자	20,000	20,000	주철기	30,000	30,000
김정인	10,000	10,000	윤영소	10,000	10,000	차영조	10,000	10,000
김종규	10,000	10,000	윤종순	5,000	5,000	천정배	10,000	10,000
김정록	50,000	50,000	윤철호	100,000	100,000	최낙현	20,000	20,000
김종성	10,000		윤한옥	10,000	10,000	최문성	10,000	10,000
김종배	20,000	20,000	이건웅	10,000	10,000	최문순	10,000	10,000
김중숙	10,000	10,000	이계환	10,000	10,000	최영진	10,000	10,000
김진경	10,000	10,000	이규중	30,000	30,000	최정식	10,000	10,000
김진모	20,000	20,000	이두엽	50,000		최희주		10,000
김진영	10,000	10,000	이두희	30,000	30,000	한익석	10,000	10,000
김진현	50,000	50,000	이상준	200,000	200,000	헤진스님	10,000	
김판수	5,000	5,000	이상훈	10,000	10,000	함세웅	30,000	30,000
김학근	10,000	10,000	이성배	10,000	10,000	홍순권	10,000	10,000
김호진	10,000	10,000	이영국	10,000	10,000	홍용희	10,000	10,000
김희선	10,000	10,000	이영숙	10,000	10,000	황용만	5,000	5,000
남만우	30,000	30,000	이영후	30,000	30,000			
노웅래	20,000		이우재	10,000	10,000			
노시선	30,000	30,000	이원혁	100,000	100,000			
문재선	10,000	10,000	이윤옥	20,000	20,000			
민향선		10,000	이응국	5,000	5,000			
박복삼	10,000	10,000	이인석	10,000	10,000			
박덕진	10,000	10,000	이일선	30,000	30,000			
박동기	10,000	10,000	이재선	5,000	5,000			
박두곤	10,000	10,000	이정재	50,000	50,000			
박아영	10,000		이종락	30,000	30,000			
박양수	10,000	10,000	이종찬	100,000	100,000			
박원표	50,000	50,000	이창복	20,000	20,000			
박유진	10,000		이창윤		10,000			
박은봉	30,000	30,000	이 철	10,000	10,000			

2013년 9월, 10월 특별회비

회원명	9월	10월
(주)오토오티오	5,000,000	5,000,000
(주)아팩철강	3,000,000	3,000,000
(주)아티전	590,000	
이동철	360,000	
한승동	100,000	
장두원	500,000	
조은옥		500,000
전봉성		100,000

◆ 입 회 원 서 ◆

이 름 (한자)		연락처	핸드폰 자 택
생년월일		성 별	남 / 여
주 소			
직 업		소 속	
비 고			

본인은 (사)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설립목적에 적극 찬동하고, 회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다할 것을 약속하며, 이에 입회원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_____ (서명)

◆ CMS자동납입 신청서 ◆

은 행 명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명		예금주 주민번호	
이체희망일	15일 ☐ 25일 ☐	출금시작월	()월
납부금액	1만원 ☐ 2만원 ☐ 3만원 ☐ 4만원 ☐ 5만원 ☐ 10만원 ☐ 20만원 ☐		
	자유지정금액 ☐ (원)		

- * 납부하신 회비는 지정 기부금 영수증을 1월에 발행하며 연말정산에 경상비로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 * 본 회원가입신청서 작성 후 FAX(02-732-2870)으로 송부 바랍니다.